朝鮮日報
夕刊
二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本社定期刊行物 朝鮮日報『朝光』(月一回發行) 同『女性』(上同) 同『少年』(上同)

燒酎의大王 勝關票 年醸造高八万石

陸荒鷲杞縣猛爆

隴海沿線西進部隊 敵自動車部隊擊退

【○○一日發同盟】我鹽田、宇佐神、坂本、鈴木各陸軍航空隊는 地上部隊에 協力하기爲하야 一日午後四時 ○○基地를出發하야 戰場을 掩蔽한 密雲을冒하고 먼저 鹽田、宇佐神兩部隊는 敵抵抗의 中樞인杞縣城을 空襲하야 其西側及西南方一帶에 蟠居한 敵部隊를 完全히 粉碎하엿다 一方 坂本部隊는 杞縣北方十二粁의 四原에잇는 堅固한 敵野砲陣地에 容赦업시 ○○瓩의 爆彈을 投下하야 敵에게 大打擊을與하엿다 그리고 鈴木○○部隊는 僚機의 爆擊을掩護하야 敗走하는 敵兵에게 果敢한 地上掃射를 퍼부어 完全히 其目的을 達成하고 午後七時二十分 全機無事○○基地에 歸還하엿다

【徐州一日發同盟】隴海沿線으로 西進하는 我○○部隊는 三十日午後六時 隴海線上의 歸德西方八粁의 柳家集附近에서 優秀한 裝備를가진 自動車部隊 約五千六百의 敵兵과遭遇하야 날저문 中部平原에서 壯烈한 戰鬪를 展開하야 이를完全히 擊退하고 機關銃小銃及裝甲自動車多數를 鹵獲하고 凱歌를울리엿다

米는四萬五千噸

英國은四萬二千五百噸 新主力艦噸數에對한兩國主張

【倫敦一日發同盟】英、米兩國政府는 倫敦海軍條約에 스카레이러條項援用에伴하야 新規建造主力艦噸數備砲口徑에對하야 四月一日以來 折衝을 거듭하고잇는바 英國政府로서는 諸般의 事情을 愼重히 考慮한結果 新主力艦의噸數를 四萬二千五百噸으로 하기로 決定하고 倫敦條約協議期間이 三個月經過하기前 皇帝誕祭의翌日 各締約國에此旨를 通告할方針이라고한다

以上의 四萬二千五百噸으로英國海軍은 그必要를 充足시키기에充分하다고 생각하고잇스나 어에對하야 米國政府는 依然四萬五千噸의 主張을 讓步치안흘뿐더러 이로써 아직最大限度로는생각하지안흠으로 噸數에 關하야英、米兩國의 主張은 마츰내安協되지에 어르지못한것으로 볼수밧게업다 此間에잇서 注目할것은蘇聯政府의 態度인바 倫敦消息通은 蘇聯政府는 米國의四萬五千噸主張의 目標가 日本建艦에對抗的 意味를가지고 잇는것이라하야 自國도한 日本의脅威를 밧고잇다고하야 大艦建造의權利를 主張하게되지나안는가고憂慮하고잇다 但蘇聯政府에서 四萬五千噸主力艦을 建造할能力이잇는나 업느냐는 疑問이나 萬若그旨를 宣言한다면 다음에는獨逸政府가 自國建艦計劃을 變更코저 英、獨海軍協定의 修正을要求할 可能性이잇다한다

在支米人財産復歸를 日本政府에申請

米國務省通牒內容發表

【華盛頓一日發同盟】米國政府는 支那에잇서 米國人財産回復問題에關하야 日本政府에 申請하기로 決定하고 過日 駐日그루大使에게 訓令을 發하엿는데 國務省은 一日右通牒內容을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在支米國人은 日本軍에게 自己財産占有가 阻止되엿고 또 其中에 今日依然 日本軍에게 占有된것도잇다 어느米國人을如何히하야 其財産에 復歸할가하는 問題는 漸次 米國政府의 關心을增大케하는바이다 日本側은治安이 充分回復되지못하엿다는理由로 米國人이 財産에 接近함을拒否하엿다 日本人만은 日支戰鬪에 際하여도 現地에 머물러 自己의業을營케함을許한다 이에反하야 米國人業者及宣敎師는 自己從前의住宅에 復歸함을 不許하고 自己所有物에 接近하는것까지 許치 안는다 如斯한 日本當局은正當한理由를가진 米國人의 財産復歸에 依然支障을招來케함에對하야 妥當한理由를 發見하기困難하다 그리고 本通牒으로 注意를 喚起한 情勢에잇서 日本側은 在支米國人의權益을 損害하고 어룰 干涉함은 從來日本政府가 거듭與한 米國의權益의愼重한 保障과矛盾하는바이다 따라米國政府는 日本政府에對하야 至急 支那에잇서 米國人財産을正當한所有者에게 回復시킬措置를取하기를要請하다 特히 日本軍이滬江大學을 南北米浸禮敎宣敎團에게 還附하기를要求한다 그리고國務省當局의推察에依하면 過去數個月 上海其他南京、揚子江流域에서 自己財産에 復歸할수잇도록日本當局의許可를 待하는米國人은 三百名以上에 達하여잇다

廣東空爆

支那聯盟에泣訴

【쥬네브一日發同盟】聯盟支那常置代表胡世澤은 一日聯盟事務總長 아브놀氏에對하야 日本軍의廣東空爆에 關한 支那政府의通牒을 手交하야 日本軍의 行動은 無防備都市空爆이라고 提訴하엿는데同通牒內容은左와如하다

過去數日間 日本軍의 飛行機는 支那의가장 人口가 稠密한都會의 하나인 廣東을 連續的으로 空襲하야 軍事施設에서 멀리떠난 地帶를 爆擊銃擊하야 婦女子를 合한 約一千人의 市民을 殺傷하엿다 支那政府는無謀한 爆擊을嚴히非難한 一九三七年九月二十八日의 總會決議를想起하고 如斯한日本軍의 集團的殺戮行爲를 阻止하기爲하야 聯盟은速히 有效한措置를 講究하기를 要請하는바이다

英佛共同動作으로 日西兩國에提議?

【巴里一日發同盟】봉네外相은 一日午後外務省에 킵크스英國大使의 來訪을求하야 西班牙의 抗議問題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봉네外相은 最近頻繁한 프랑코軍의 爆擊事件에 鑑하야 英國政府에 共同行動提案을 하엿다는바 英國政府의 回答을 어드면 卽時 프랑코政府에 對하야 無防備都市空爆을 中止하라는旨를 申請하리라고觀測된다 그리고 一日支那政府의 廣東空爆에對한 提訴가成功하면 或은英佛兩國政府는 日本政府에 對하여도 共同申請을하지안흘가 推測된다

時事解說

官吏制度改革

官吏制度改革問題의 歷史는 政治史、經濟史의 側面史이기도하다 官吏自體가 巨大한 一個의組織體가되여잇는 今日에잇서서 이制度를改革하기는 決코容易한일이아니다。近衛內閣이 非常時局인 戰時의重壓을 利用하야 이制度改革에 決然히着手한것은 大英斷이라할것이다。 이改革의中心은 一、文官任用令改正과 二、官吏身分保障令廢止에잇는바 前者에잇서서는 從來勅任文官은 거이全部資格任用으로 되여잇든것인데 이를廢止하고 [illegible] 人事의 [illegible]를 防止하기爲하야 內閣에所謂銓衡委員會를 設置하고 여기서 勅任文官을 銓衡任用하기로한것이다 따라서全國地方長官을 始하야 各省次官 局長級에도 適用하야 [illegible]에 遺憾이업도록하려는 것이다。◇ 後者 身分保障令은 元來 [illegible] 內閣時에 政黨의 人事異動이 너무도 濫發하엿기때문에 官吏를 保障하기爲하야 制定되엿든것이나 今日에와서는 [illegible] 도리혀 人事의 [illegible]과 沈滯를 招來하게되여 自然 그存在理由가 [illegible] 身分保障令을 撤廢하고 [illegible] 官吏에 對하야는 主務大臣이 [illegible] 休職을 命할수잇도록하야 官吏全體의 緊迫과 尸位素餐을 [illegible]하게된것이다。 ◇ 이制度改革案이 現狀維持의 [illegible] 未定中이나 今日의 [illegible] 英斷的改革案의 精神은 官吏의 保守集團組織으로부터 戰時의 [illegible]組織에로의 動員에 잇다고 볼수잇다。 다시말하면 官吏는 只 法律運用의 技術者로서의 官吏가아니요 刻刻으로 展開되는 新事態에잇서서 能히 獨自의 識見과 判斷으로써 判斷決定할수잇는 動的官吏에로의 動員에 잇다고 할것이다。

歐洲危機에對處

英戰時徵兵制實施計畫

【倫敦一日發同盟】英國政府는 歐洲危機에備하기爲하야 着着其再軍備工作을 進行하고잇는데 이에 卽應하야戰時徵兵制度實施計[illegible] [illegible]은 一日下院質問時間에서 左와如히言明하엿다 政府는目下戰時徵兵制度를實施할 計劃이다 그러나 兵員의強制募集만으로産業其他 非軍事機關의 強制的動員은 右計劃中에包含되지안엇다 但政府는 一日有事之時 國內人的資源을 가장能率的으로 活動케할 方法을따로 考慮中이다

米、支新協定締結

【紐育一日發同盟】米國政府는 昨年七月 國民政府特使 孔祥熙의渡米를機會로 米國의金과 交換으로 支那銀의 買上協定을 締結한바 傳하는바에依하면 米國政府는 今回支那銀買入에 關하야 國民政府와 新協定을 締結하엿다고한다 國民政府는 右協定에基하야 米國으로가는 支那銀貨를 積出하야 이를 米國에서 弗貨로 計算引換하야 保有하기로 되엿다고傳한다

敵二十萬大軍集結

鄭州에서大會戰

防備司令胡宗南任命

【石家莊二日發同盟】蔣介石은 漢口政府의 運命이 此一戰에잇다하야 鄭州防禦에 全力을 傾注하고 第一軍長胡宗南을 總指揮에 任命 長江以北의 各軍에對하야 至急鄭州附近으로 進出하라고 命令하엿다 이때문에 支那軍은 續續鄭州附近으로 集結中인데 判明된바에依하면 中央軍三十五、三十六、五十一、六十一、六十四、百五十四各師及 胡宗南의 第一軍及顧祝同軍의 一部 商震 宋哲元軍의 殘部도 加勢하야 黃河를 隔하고 我軍과 對峙하야 開封을 第一據點으로 布陣하엿는바 鄭州附近은 嚴戒狀態인바 其數가 어미 二十萬을 突破한다고한다 이에對하야 我軍은 徐州殲滅戰의 餘勢를모라 隴海線 地區西方으로 進擊하고 要衝蘭封을 陷落한 我○○部隊와 呼應하야 압서衝天破竹의 勢로써 鄭州를 衝擊하려는 形勢를 取하고잇다 하야로 漢口政府崩壞를 압두고 戰略的으로 重大意義를 가지는 一大會戰이 展開되려하고잇다 蔣介石은 開封、鄭州會戰을 極히重大視하고스스로 漢口鄭州間을 頻繁往復하야 自己의 腹心으로 멋는 中央軍 第二軍長胡宗南을 鄭州防備司令에任命하고 이에 十五個師二十萬의 大軍을 指揮케하야 一擧에 雌雄을決하야 徐州敗戰의 恥辱을 雪하는同時에 落日의 運命에 逢着하고잇는 國民政府의 頹勢를 一擧에 挽回코저하고잇다 如何間蔣介石이 胡宗南을 任命한것은 注目할바로 南京의 唐生智 徐州의 李宗仁과가튼 旣往의 大會戰總帥에 傍系將領으로써 全責任을 轉嫁하고 直系將領全部를 無傷케하엿든것에 反하야 今次會戰에잇서는 特히信賴할만한 胡宗南을總指揮에 任命한것은 蔣介石의 決心이 非常한것을 表現하는것이라하야 注目된다

支那는獨力抗戰

粤漢線遮斷되도他線殘存 孔祥熙依然豪語

【香港一日發同盟】米國UP通信社 漢口電報에依하면 同社特派員 하와드氏는 三十日 香港으로부터 飛行機로漢口에날러 孔祥熙에게 媾和及 列國干涉問題에對한意見을 打診하엿는바 孔은 左와如히 述하엿다

我國은 防禦的立場에 엇스므로 侵略防守戰을 停止할수는업다 余의意見은 媾和의길은 두가저가잇다 하나는 日本의軍國主義者가 支那와如한 征服不可能한國家를 侵略하는것을 中止하던가 或은 列國이日本을 說服하야 戰爭을 中止시키던가이다 日本은 幾多의戰爭에서는 勝利를어덧슬것이나 支那와如한 土地의廣大와 人民이衆多한 國家를 征服하기는 不可能하다

余는列國이 干涉을加하기不可能하지안흘줄로信한다 獨逸顧問의撤歸는 顧問의意義를誤解하는줄로思한다 顧問은 作戰을指導하는者가아니다 日本은 이것을誤解하고 獨逸에強要하야撤歸케한것이다 구라허撤歸한다면 我等으로서는 不得하다 必要하면他國으로부터 補充할수잇스나 아직그럴 必要는업다 我等은獨力으로 戰爭하고잇다 日本軍이 漢口、香港間의交通線을 遮斷할境遇에도 여지 他線이殘存되여잇다

英國下院에서

廣東空爆問題討議

【倫敦一日發同盟】一日午後의英國下院質問時間에서 日本軍의廣東空爆問題에 關하야 各派議員과 바틀러次官間에 左와如한 質疑가잇섯다

모리엇議員(保守黨) 最近에行한 日本軍의 廣東空爆은 非軍事施設과及 一般住宅에 非常한 損害를주고 同時에 非戰鬪員의死傷도 多數에 達하는模樣이다 日本空軍의 이거슨 文明에 對한挑戰에 對하야政府는 日本政府에 異議를 提議하야 遺憾의意를 表明할것

바틀러次官 할리팍스外相은 新聞紙上에서 廣東空爆의 慘害를알고 그眞相에 對하야 現地官憲의 報告를 要求하엿다 따라서 詳細한 報가 到着하기까저 이事件에 對하야는 言明을避하고자한다

헨더슨議員(勞動黨) 政府는 米國其他九個國條約締約國에 對하야 對日共同抗議에 關하야 協議함이 如何

바틀러次官 이問題는 詳細한報가 到着한後에 考慮하기로하자

헨드슨議員 事態의緊急性에 鑑하야 余는 議會休會가끗난다음 再次 이問題를提出할터이다

少數民族問題

체匈兩國에飛火

【부다페스트一日發同盟】少數民族問題를 中心으로한 주데텐地方의 不安은今回체코匈牙利國境에飛火하엿다 一日兩國國境에서 체코國境監視兵에依한 匈牙利人一名의 射殺事件이 發生하엿다 被害者는 체코內에居住하는 匈牙利人으로 通報부다페스트에서 開催된 匈牙利聖餐大會로부터 歸還하든途中 一日國境을 通過할때 「匈牙利—萬歲」라고 웨첫든바 이것을드른 체코國境監視員二名이 [illegible] 匈牙利人을 [illegible] 마츰내 死케하엿다 匈牙利外相 데·카야 氏는 一日卽時체코公使에對하야 嚴重抗議를提出하엿다

人面錄

◇滿支産業視察團員 가지가지 선물을 가지고 今朝 歸京。

◇滿洲曠野에 놀란이、北京의 古代文化에 感嘆한이、무시무서한戰時氣分에 興奮된이、

◇고생도 만코 재미도 만헛스나 結局은 各各 所得이 만헛다고。

◇그것도 그럴바께、滿支는 新興國家요 新興産業地帶니까。

◇金剛山의 鑛石을 夜半 盜掘하는이가 만타고。

◇아무리 黃金時代인들 名山大川을 破毀하는 者가 어데잇스랴。

◇오늘이 陰曆으로 端午日。

◇天中之佳節이라 男子는 脚戲를하고 女子는 鞦韆하는날。

◇쎄 尙武의 日임을 알아랑 젊은 靑春이어 하로를 나와 서원히 播風하라。

本社辭令

(六月一日附)

業務部長 元澤淵
任販賣部長
販賣部長 金歡淑
任咸北支社長

人事·集會

▲江田正一氏(京畿道商工指導相談所囑託) 新任人事次二日來社

陸軍服制改正

當分舊制式服을併用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五月三十一日 勅令第三百九十二號로써 劃期的 服制改正을 行한바 國策線에 沿하야 消費節約의 見地에서 當分間舊制式軍服을 使用할수잇도록하고 그 이를 陸達第三十一號로 六月一日公布하엿다 또新制式과 舊制式의 混用軍服도 認定하기로決定하고 陸達第三十二號로 그要領을 左와가티 明示하엿다

▲夏服軍衣 舊制式上衣는 只今까지의 襟章을 除하고特히 襟部를改造치 안엇드라도 新正式의 襟章을 襟에 또胸章(兵科定色山形絨)을 右胸에 附하야使用할수가잇다

▲外套 舊制式外套는 肩章을 除하고 新制式의 襟章을 襟에 附하고新袖章은附하지아니함

▲將校外套 舊制式의 襟星章을除하고新制式의 襟章을附함

小林部隊

東興村占領

【龍山師團發表】小林部隊의 全力은 三十一日拂曉부터 東興村(隆馬鎭西方約四粁)의 堅固한 陣地를占領한 敵에게 對하야 再三突擊을 反復하야 午後六時에 드듸여 이를 占領하고 繼續하야 西興村에 達하야 爾後攻擊을 續行中이다 當面의 敵은 六十四師約一團으로 遺棄屍體 約二百 捕虜와 鹵獲品이 多數이엿스며 我損害는 輕微하다

輸入許可

大藏省移管

【東京電話同盟】大藏、商工兩當局은 池田藏相兼商相就任後 兩局關係行政 一元化의 第一着手로서 商工省의 輸入許可事務를 一元化하기로 되엿는데 大藏省에서는 事務의 併合을機會로 從來輸入爲替許可申請은 大藏省令에依하야 日銀을通하야 提出되던 것을 直接大藏省에 許可申請하면 되는同時에 大藏省의 委任事項으로서 日銀에서 許可되든 一千圓以下의 小口의것의 輸入爲替許可事務도 日銀의손을 떠나서 大藏省에 一任되고 日銀許可事務는 一切大藏省에 移管키로內定하얏다

체코軍人又復

주데텐獨逸人을射擊

【프라하一日發同盟】지난五月二十一日 在獨逸人二名이 殺害되여 獨체國의 交誼에 危機를招來한 보헤미아小邑에게르에서 一日再次체코軍人이 獨逸人을射擊한事件이 發生하엿다 卽一日午前체코의 레스토란에서 飮食中이든 체코軍人의 一軍曹가 突然同레스토란에잇든 주데텐獨逸人에게 拳銃數發을 發射하엿다 多幸히死者는업섯스나 現場에잇든 獨逸人 二名이 負傷하엿다 犯人은 卽時現場에서 逮捕되엿스나 체코軍人이오 또正規軍의 暴行이만큼 事件의推移는注目된다

政友總裁問題大波瀾

結局公選으로決定乎

中島、鳩山兩派軋轢深刻

【東京電話同盟】政友會總裁問題에關한 緊急代行委員會는 去二十八日第一次會合、昨一日第二次會合을開하고協議를行한바 公選卽決을 主張하는 鳩山一郞氏에 對하야 從來 撫速主義의 選定을排하고 待機自重을 根本으로하여오든 中島、前田兩氏는 斷然自重態度를 一擲하고 反鳩山派와 連繫陣을結成하야 中島氏를 對立候補에 推擧하고 輪讀을 다투게로되여 總裁問題는 마츰내 鳩山、中島兩氏의 拮抗의姿態로되여 或은 我國最初의政黨總裁의 公選이 執行될것으로 觀測된다 卽一日의 第二次緊急代行委員會席上에서 現在의 黨情에鑑하야 速히 黨內로부터 總裁候補를 選定할수밧게업다는 意見이交換되는때 從來 鳩山、中島兩氏의 中間에잇서 機會主義的態度를 取하고잇든 島田俊雄氏는 突然 此際 中島氏를 總裁候補에 推[illegible] 이에따다 鳩山氏의 意向을 打診해본[illegible] 리는 激彈的發言을行한바 前田氏도 [illegible] 는 言을發하고 散會하엿든것이다 그리고 鳩山氏는 當日의 會合을가르처 暗殺과도가튼 陰謀行爲이다 하고 稍憤하야 二日의 第二次會合에서는 어디까지든지 黨則에基하야 總裁를公選할것이라하고 强硬히 나아갈決意를 [illegible] 總裁選定은 마츰내 三日의 會合으로써 暗礁에걸리게될것이 明瞭하게되여 現在의 形勢로는 公選의 途를밟을수밧게업다고 觀測된다 그리고 鳩山、中島兩陣營을 觀望하건대 鳩山派에는 松野、岡田、安藤等의 黨中堅層이 加擔해잇고 또 反中島派는 前田、島田、久原의 巨頭들과 그麾下를擁하고잇스나 얼마큼 烏合의弱點이엿서 現在로는 形勢互角으로 豫定되여잇는만큼 더욱今後는 互角의 相剋을演出하지안흘것인가고 觀測되는바 或은其間에 長老들이 協定에 進出할것도考慮되는데 如何든 總裁問題의 前途는 混迷波瀾重疊을 展開하게되엿다 (寫眞 上 中島氏 下 鳩山氏)

【東京電話同盟】政友會의 後任總裁決定에關한 昨一日의 第二次代行委員會에서 前田、島田兩氏로부터 [illegible] 留保한 鳩山代行委員이 松野、岡田、濱田其他側近者와도 充分協議를 遂한結果 事態가 이에至한以上 從來의 主張대로 公選에 依하야 中島氏와의 決戰을 할수밧게업다는結論에 到達하엿스므로 二日午後의 代行委員會에잇서 同日午前十時十分 牛込區若松町의 私邸로 中島鐵相을 訪問하고 總裁問題에關한 「自己의 態度는午後의 代行委員會에 正式으로 回答할터이나 從來의 友交關係로보아 미리 말하여두고저 생각하얏다 自己로서는 黨內의 事情에 어가러된대 對하야는 遺憾으로 녁이는바이나 黨則에基한 公選에依하야 問題를解決하는것이 最善의途로 생각한다」는旨를披하야 그決意를表明하엿다

寫眞機、材料 營業 アマチュア! 何でも取揃ひます 釜山府大廳町一丁目 山崎寫眞機店 電話二一七五番 中古品寫眞機レンズ交換賣買

絹綿布直輸入貿易商 時勢表進呈 東順德 京城鍾路光化門通 電話光③一四一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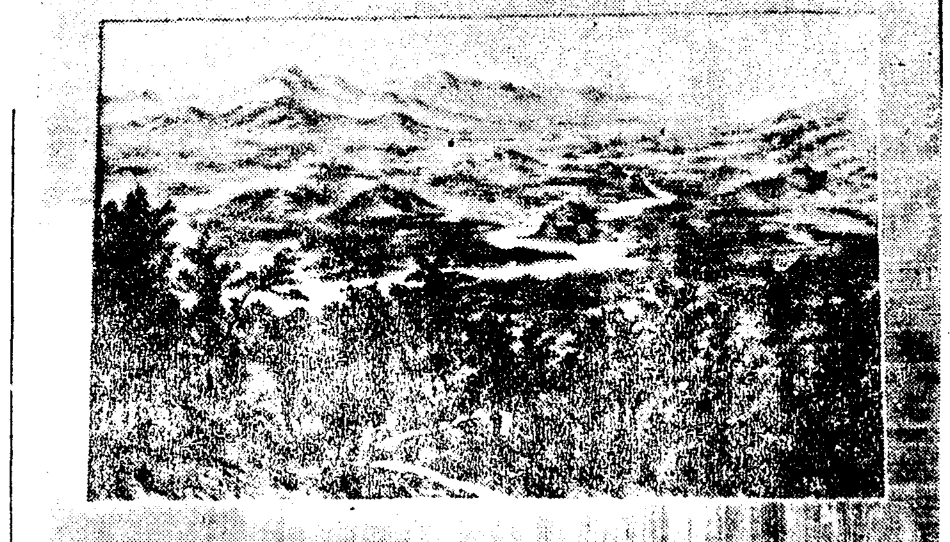
各眼科病院處方 眼鏡責任調製 京城帝國大學御用 京城府民病院眼科 京城醫專病院眼科 京城赤十字病院眼科 龍山鐵道病院眼科 龍山陸軍病院 全鮮各道私立病院眼科御指定 江頭眼科醫院 金井眼科醫院 荒川眼科醫院 仁川岩永醫院 大學堂眼鏡店 京城府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②二三七五 振京一一二九 △眼鏡·雙眼鏡カタログ送呈(要二錢) 平壤府本町六番地 大學堂眼鏡店

特別臨時發賣 巨星朴響林 花形盤 茶집아가씨 船倉에올너왓다 Columbia -40816- 콜럼비아레코-드

歐米各國世界第一特効藥完備 米國生物學士 韓箕道內科醫院 京城鍾路パゴタ公園正門東側隣 電話光化門③一八七八番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察學會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特選『郊外스켓취』 崔桂淳



初特選『靜郊』 沈銀澤

初入選에初特選 沈、金兩氏의榮譽

朝鮮美展特選二十四氏發表

오는오일신축이옥어진 영대궐경복궁(景福宮)안에서 개막될 제십칠회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展)의 특선작품(特選作品)은 예정과가티 금이일오전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정식발표가잇섯다 입선총점수이백륙십사점 추천과 무감사이십점 전부합계 이백팔십점중에서 특선작품이 이십사점이다

어상의 특선작품이십사점중에서 제일부동양화사점 제이부서양화삼점 제삼부조선공예삼점한계십점은 초특선(初特選)으로조선미술계의 등용문(登龍門)을 통과하야 금상첨화(錦上添花)의 이채를 이루웟다 그리고 그중에도 시내 홍파정(紅把町) 일백오십칠번지 심은택(沈銀澤)씨의 정교(靜郊)(第一部)와 전라남도 광산군·송정리(光山郡松汀里)김동일(金東馹)씨의 라전입궤붕(螺鈿入饋棚)(第三部)은 초입선인 동시에 초특선으로 단연 만록총중(萬綠叢中)의 일점홍을 이루워서 조선미술계를 빗내고잇다

이제 초특선과 초입선중 초특선을 조사하면 다음과갓다

◇第一部
中庭 田淵秀明
市日 千葉房男
○靜郊 沈銀澤
모데스라ー 今田慶一郎

◇第二部
子供達 高島功
고마(팽이) 根津莊一
郊外스켓취 崔桂淳

◇第三部
膠織天盆 鄭寅琥
樂浪文樣彩漆寶石匣 坂部幸太郎
螺鈿入饋棚 金東馹

特選二十四氏

第一部(東洋畫)六點
中庭 平壤 田淵秀明
市日 京城 千葉房男
靜郊 同 沈銀澤
모데스라 同 今田慶一郎
夏日 同 金基昶
市 同 江口敬四郎

第二部(西洋畫)十點
水邊 京城 沈亨求
목도리한女子 同 大塚賤志
屋上風景 同 田中紀弘
子供達 大田 高島功
팽이 京城 根津莊一
술집 群山 山下一彦
同春苑 京城 松崎寬美
內庭秋日 同 櫻田精一
郊外스켓취 同 崔桂淳
習作 同 金仁承

第三部(彫塑及工藝)八點
口 鉏 京城 戶張幸男
女人立像 同 金復鎭
喜스편綴織衝立 同 龜田綠子
膠織天盆 同 鄭寅琥
目白鳥 同 淺川牧榮
樂浪文樣彩漆寶石匣 平壤 坂部幸太郎
乾漆花瓶 東京 姜昌園
螺鈿入饋棚 光山 金東馹

登龍의苦心·血汗의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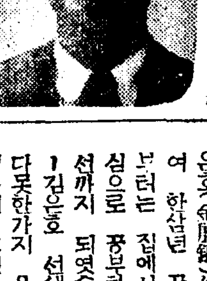
靑田門下一年에 初入選에特選

四男妹를기러가며工夫해온분 깃버하는沈銀澤氏談

제일부「동양화」(東洋畫)에 『조용한郊外』를 출품하여 영예스러운 초입선을하고 더구나 특선의 광영을입은 심은택(沈銀澤)(三九)씨는 일찌기 동경가서공부를하고돌아온 다음부터는 사남매나되는 자제교육에 힘쓰다가 작년여름에 비로소 청전(靑田)이상범(李象範)씨문하에서 그림을배우기시작하엿다는데 소질문제도잇지만 그림배운지 십개월만에 입선도어려운터에 특선에까지 당선된것은 우리화단의 자랑이며 자라가는 우리화단을 위하야 깃거운 일이다 홍파정(紅把町)자택으로 심씨를 차즈니 겸손한어조로 다음과가티말하엿다

「그림그린지가 일년도 못되어 출품은 하엿지만 입선되리라고는 바라지도안엇습니다 이번에 의외에도 입선에다더 목이 특선의 넘치는광영을입어 깃븐지엇전지 모르겟습니다 모든것이 청전선생의 도음입니다 압흐로는 엇더케하겟다는것보다 그저책임이 중함을 늣김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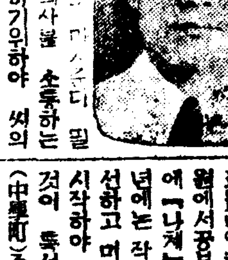
純全한獨學 崔桂淳氏談



제십칠회 조선미술전람회제이부서양화에 『시골풍경』을출품하여특선의 영예를 획득한 최계순(崔桂淳)(三四)씨를 차저서히소식을전한즉씨는 기쁜얼굴로아래와가티 말한다

금번에『시골풍경』을 출품하여 특선을 하게된것은 여러선생을 하게된것은 여러분들이 후원하여주신 덕택이올시다 나는이번이 처음이 아니오 제십오회 십륙회에도 출품하여 입선을하엿습니다 금번에는변변치도아니한것이 다행히특선을하게되오니 감개무량할뿐 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생사리를 만히 한사람으로 학교도변변치못하엿습니다 순전한 독학입니다 아프로는 더욱공부하여서 일층조흔작품을 만들생각뿐입니다

不具의精進 두번째特選 金基昶氏父親談



롱아(聾人)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서도(書道)에 정진하기십년、이십오세의 약년으로 이번에 거작 『하일』(夏日)을 출품하야 중인을 제치고 특선의영예를 차지한 김기창(金基昶)씨를 운니정(雲泥町)십팔번지 씨의자택으로 차저드니 비록 귀는 들지 못하나 차저온뜻을 곳 아러차리고 웃는 얼굴로 마저주다 필담(筆談)으로 의사를 소통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위하야 씨의 춘부장되시는 김승환(金升煥)씨가대신 말슴해주신다—

「어려서 심한 열병을치르고 나서 귀를상한후부터는 불구자로서 일생을보내게되여 부모된자로 가엽기 그지업섯스나 그래도 롱인(聾人)으로서도 할만한 직업을 엇게하려고 목공(木工)일을 시키려하엿더니 본인이 반대할뿐만아니라 제모(母)가 극력반대하므로 본인의 희망대로 그림공부를 시키기로 작정하고 김은호(金殷鎬)선생에게 부탁하여 한삼년 공부시킨후 그후부터는 집에서 제혼자서 열심으로 공부하더니 이러케특선까지 되엿습니다 모도가다 김은호 선생의 은덕이지요 다못한가지 유감된것은 그럿케까지 후원하고 격려해주던 제어미가 륙년전에세상을 떠나고말어서 이즐거움을 함께 난호지못하는것입니다」

「自身가젓던 이번作品」 더욱힘쓰겟다는 金仁承氏談

서양화부에 특선된 김인승(金仁承)는 금년이십구세의 젊은이로써 재작년에 동경미술학교를졸업하고 현재는 조선미술원에서공부를 하고잇는데 작년에 「나체」라는작품이 특선되고금년에는 작품전부가 모두입선하고 미전이열리기 한달전부터 시작하야 이십일만에 완성시킨것이 특선으로들어갓다 중학정(中學町)조선미술원에 씨를차즈니 침착하고 겸손한태도로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그림은 이론을가저야 한다고하나 나는 아직 이론을 표현하질 못한나다 금번에 특선된것은 나로써는 자신이잇섯다고 할수는업습니다 그저 자꾸공부하겟습니다」

七十老人의 鄭寅琥氏 旅館뽀이이야기

제삼부에서 특선이된 정인호옹(鄭寅琥翁)을 씨가오래전부터 묵고잇는 여관(旅館)으로 차저드니 마침안계시고 동여관주인이 대신 말한다—

정옹은 금년일흔살의 노인으로 오래전부터 우리여관에 묵어계시면서 날마다 무엇인지 열심으로 일하시기 무엇을 하시나 드러다보앗더니 그것이 이번에 특선이 되엿다는 그작품이엿습니다

八十祖母 반가워하는 沈亨求氏家庭

서양화부에서『수변』(水邊)으로 특선이된 심형구(沈亨求)씨를 운니정(雲泥町)이십이번지로 차저것드니 씨는 방금 동경에가잇고 엇젓스나 씨의 조모(祖母)가 대신마저주신다—

「기뻐고 말고 여부가 잇겟습니까 다른사람이엿드래도 기꺼운 일일터인데 한차 내손자가 그 어려운 미술선이란는것이 되엿다니 웨반갑지 안켓습니까 나는어떤그림이잘된것인지 못된것인지는 알길이 업서도 예전부터 그림만은 무척조하해서 형구(亨求)가잇는 방에드러가면 울긋불긋한 그림이잔득 걸려잇서 틈만잇스면방에드러가서구경햇지요

中學二、高女三校 農業、水產各一校設置

京畿道中等校增設計畫大綱

경기도 학무과조사에 의하면 소화십일년도내 중등학교입학률은 조선인남자가 지원자의 일할오분 여자가 삼할오분사리, 내지인남자 사할오분사리 여자오할로 특히 조선인측이 얼마나 격렬한 경쟁의 난관을 돌파하지안으면 중학교맛을 볼수업다는것을 여실히 보혀주고잇다 이경향은 연한이 단축되여 소화십칠년까지에 완성되는 제이차 초등교육 확충계획의 진행에따라 점점 더심각하야질것으로 총독부학무국에서는 그완화책으로 중등교육확충계획연한을 단축하야 십칠년도까지에 전조선에서 칠백학급을 완성하기로 되엿다함은 기보한바이다 지금 경기도의 이계획에의한확충계획을보면 현재도내에는 공사립중등학교가 삼십팔교에 사백삼십학급인것을 명년도부터 십칠년도까지 사개년동안에 십교를 증설하야 완정년도인 소화십칠년에는 일약 일백륙십학급이 느러총수 오백구십학급으로되여 현재수용수 이만일천이백륙십명이 느러 이만팔천오백이십명으로할 계획이다 증설계획의내역을보면 중학교가둘, 고등녀학교가셋, 농업학교가둘, 수산학교(水產)가하나, 직업학교가 하나합하야 아홉학교가 도립으로될것이며 남어지하나가 사립으로될것이다 그중조선인의생을 주로 수용할학교로는 중학교하나 고등녀학교하나이며 학교위치는미정이나 수산학교만은 인천에설치될것으로보힌다

明日부터三日間 最終의銓衡試驗

各道의選拔勇士二百四十名 志願兵制實施段階에

룡산사단에서는 삼일 사일 오일 사흘동안(매일오전일곱시 사십분부터) 룡산해행사(偕行社)서 각도로부터 선발되여 도지사의 증명서를 마타가지고온 지원병 지원자 이백사십명에 대하야 시험위원장 길전대좌(吉田大佐)로부터 전형시험을 집행하기로되엿다 이틀동안은 체격검사 구두시문(口頭試問) 인물고사(人物考査)를 하고 사흘째는 학과시험을보기로 되엿다한다

惡德洗濯外交員

양복쟁이를 올리고다니던 악덕세탁(洗濯)외교원이 잡혓다— 리창준(李昌俊)(二二)이란 사나이는 부내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이백사십이번지의오호에 현주소를 두고 시내각세탁소외교원으로전전하고잇던 세탁외교원 리창식 ... 난사월이일 마장정(馬場町)사십사번지 상전(上田)의집에서 세탁해오라는 겨울외투(시가육십원)한벌을 그냥먹어버린것을 위시해서 그동안 각처에서 여러 차례로신용잇는 세탁소외교원인양 감언이설로 양복쟁이들을속여서는 세탁해오마고 양복류를 마러가저다가는 전당에너허 술갑에 충당해오든것이 드디어탄로되여 삼십일일 동대문서에체포되엿다한다

高敞金融組合 卌一週年記念式

【高敞】지난 삼십일오전열시에 당지금융조합삼십일주년기념식을 거행하여 동석상에서 당조합에서 좌담회까지하야 장래조합업무가 가일층번창을도키위하야 특히농촌진흥 자작농창설을 힘써야된다 등 은행매개대부알선등을 아프로더주력키로하엿다

殉職警官招魂祭擧行

【滿洲】경찰협회호북지부와 소방협회호북연합에서는 오는십일오전여덜시부터 청수경찰서구내에서 본도순직소방조원제삼회초혼제를 거행하기로되엇다한다

高啓學院上告判決은 "假處分"效力의新判例

親權者가準禁治產宣告를바덧드라도 宣告前假處分은有效

부내 보성중학(普成中學)을경영하는 재단법인 고계학원(高啓學院)대 철원부(鐵原富)부호 고희원(高熙源)씨와 삼남명에대한토지소유권 이전및 소작료인도청구소송은 일심에서 원고측인고계학원이 승소하고 이심에서는 패소 상고심에서는 지난달이십사일 도변(渡邊)재판장으로부터 원판결을 파회하고 사건을 원재판소로 차려(差戾)한다는 판결을나려 고계학원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리라는것은 기보한바 로이일도변 재판장은이사건에대하야 미성년자에대한 친권자의 재산관리권행사를 정지한처분은 그후친권자가 준금치산의 선고를바더도 이에인하야 당연목적의소멸을 초래함으로 실효한다고는할수업다 즉 친권자에 대한준금치산의선고와 재산관리권행사정지의가처분의 효력에 관한신판례를 지엇다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피고 고희원씨의 친권자고고중권씨는 소화육년 구월이십일일 재산관리권 행사정지가처분을밧고 다시 십이월이십팔일에는 준금치산선고를 바덧스나 당연히 목적한대상의 소멸을 초래하야 가처분이 실효한다고 할수업스므로 후견인 오청(吳聽)씨의 고계학원에대한 기부행위를 무효하다고 인정할수업다는 것으로 이로써 복심에서는 이상고등법원의판단에 기속(羈束)을 바드므로 이것을 미루어 결국원고측인 고계학원에 유리한해석을 갓게된다

擧動殊常漢 잡고보니前科者

이일오전구시반경에 서대문서원이 남대문(南大門)근처를 순행할지음 거동이수상한자가 카다란 보퉁이를 지고 감으로 본서로이치하고 취조한결과 이사람은 본적을좌하현(佐賀縣)에두고 주소가일정치안흔 전과일범 전단유웅(田端由雄)(二二)으로 사생아(私生兒)로 태여나 본적지에서 오리집(쿡크) 상점견원노릇을 하다가 이년전에 조선와서 도라다니다가 절도죄로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금년삼월에 출옥한후 다시금 그른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오월이십구일 오후십시경에 평양역(平壤驛)에서 정거중인 부산행(釜山行)열차침대속에서『큐링크』한개를 절취하고 또금이일오전세시경에 경성역(京城驛)에서 정거중인 부산행열차침대에서 역시양복이 가득히든『큐링크』한개를 절취하야 가방은고시정(古市町)삼십번지의 오십칠호이하에두고 양복을전당포에 입질하리가던도중에 전기서대문서원에게 발각되엿다는데 동서에서는 여죄를추궁중이라한다

本社滿支產業視察團 今朝京城驛歸還

半朔의收穫多大!

본사주최 북지산업시찰단(北支產業視察團)일행은 그동안 전정을 다마치고 이일오전칠시이십오분 경성역도착렬차로 다수 본사원과 단원가족들의 출영리에 단장본사수필 리훈구(李勳求)씨이하 이십이명의 전원이무사히 도착하엿다 오월십륙일밤 경성역발렬차로 경성을 출발하야 동북국경을 건너서서 만수국을 방문하고 북지로 들어가 천진(天津)북경(北京)장가구(張家口)까지 돌아오는동안 전여정십륙일에 일행은 각방면시찰도 만히 잘햇고 단원의건강도 극히조흔편이어서 그수확은 적지안흔것이잇섯다 단원들도 그동안 여행이 극히원만하엿고 시찰의수확이만헛슴을 각각감사하는말을하고잇섯다 (사진은 경성역에도착한 시찰단일행)

女性朝鮮의大行進 中等體育大會

市內十四校八千女生徒動員 十八日 京城運動場

女子스포ー츠界의 豪華幕…京城女子中等體育聯盟主催의 第二回全京城女子中等體育大會는 來十八日午前八時부터 綠陰이 바야흐로지터가는 京城運動場에서 華麗한幕을 열기로되엿다 二十五日에行할豫定이던것을 運動場關係로다어서 十八日에 行하기로되여 市內各女子中等校에서는 이날의榮冠을 꿈꾸며 猛練習을 거듭하고잇는데 競技는陸上、卓球(以上一學年부터)、排球(以上二學年부터)等을 各學年別로對抗할터이며 參加校는京畿高女、淑明、進明、同德、梨花、女商、槿花、貞信、第一高女、第二高女、女實、龍谷、彰德、向上等의 全校生徒가 動員할터로 그總數는實로 八千餘名에達하리라고한다 이날은특히 三次의聯合體操가잇는데 入場式에앞서서 라디오體操第二와 第一、正午에 라디오體操第二 閉幕式에 聯合徒手體操를 行하야 體操가가진調和美를 遺憾업시發揮할것이며 正午에는女性朝鮮의 合同大行進이잇슬터이다 그리고 興味의 焦點이될『줄다리기』는 各校에서 代表二十名式出場하야 紅白에 나누어 行할터인데이또한 壯觀을이룰것이다 그밧게도 各學校의 特長잇는 體育땐스體操器械體操等이잇슬터이라한다

家庭不和로 飮毒한靑年

가정불화로 부부간에 싸우고 비관끄테 자살을도모한 청년이 잇다 시내숭인정이백이십이번지에사는 철도국원박의현(朴義鉉)(二三)이는 지난오월삼십일에 그의처김씨(金氏)와 말다툼을하고 나서 분김에그날저녁부터 절식을하고나서 밤중에 극약사염화탄소구(四鹽化炭素球) 사십개를 먹고 고민하는것을 유월일일에야그의일가되는 박관현(朴寬鉉)이가발견하고 적십자(赤十字)병원에 입원시켯는데생명에는 관계업다한다

强盜被疑者 李治盛送局

【木浦】기보—목포이산(木浦梨山)강도사건의 용의자 이치성(李治盛)(二三)에 대한 강도범의 취조는 거의일단락을 고한모양인데 피해자와 면질한언명을보든지 범행당시에 유기하고간수건을보든지 증거가상당하나 이치성은 끗까지 강경하게 부인하나 근일간취조를마치고 목포검사국으로 송치하리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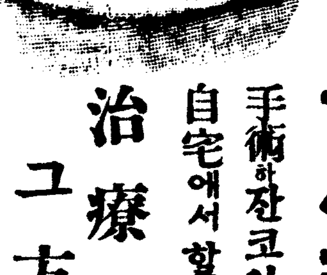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午後六時、二〇分 童話 尹石重 ▲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 沈明燮 ▲八時 大衆講座 ... ▲八時二〇分 ... 詞 金花香 文明仙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八時五〇分 라디오小說 沈影 ▲九時一〇分 西道歌謠 李明雲 笑琴 李忠善 細笛 ... ▲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中等一)朱雲應

第一放送▲午後六時(東)木琴 ▲七時二〇分(城)라디오常識 ▲八時(東)講談 ▲八時三〇分(京) ▲八時五〇分(東)드라마

色鉛筆

날이 더워지면서 여름옷이 점차로 봄옷과 바뀌여가고 잇는데 첫재눈에 띄우는것이 여자들의옷 ▲더운때니까 엷게 입는것은 당연하고 피치못할 일이기도 하지만 엷게 엽는다는것이 어 명정도 엷어다는것도 어떤때는 보기숭한장면에 엇지안흔테다가▲옷옷은 더구나 엷은것으로 살이헤뚤려보이는것을입고 다니는것은 점잔은 여자들로서 회심허 생각할일▲남자들의 양복도 구미의본고장에서는 특수한 사람이외는 봄과여름의 구별을 그리심히하지도 안는다고도하나▲조선서는 여름양복이라면 모시두루맥이 업는세계고입으니 불경제가 아니냐고 못는 사람도잇다▲기후관계도 잇겟지만 옷도 어떠케 엽어야할것인지 생각할일

코나쁜사람 手術하잔코아프잔케 自宅에서할수잇는 治療와 그方法

埼玉縣大宮町(氷川公園) 東京鼻科藥房研究所

고쵸가루 商標 金子壽商店製粉部 釜山府草梁町

京城高等簿記學院(前期)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 (電話本局五三六〇)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 (電話本局五三六〇)

中國名藥 性器強 大靈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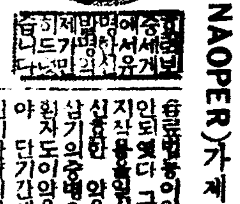
早漏立止 富興公司藥品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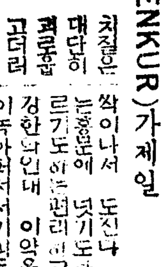
六月四日母校 第十五回陸上大運動會를母校校庭에서擧行하오니 校友諸位는掃萬來臨하심을敬要 (雨天順延) 徽文校友會 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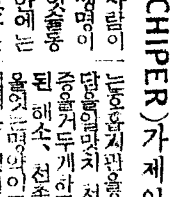
桃屋의 フルーツ 品質第一等 果實罐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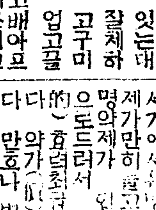
白桃、黃桃 枇杷、西洋梨 후루ー쓰사라다 후루ー쓰폰치 蜜柑 櫻桃 鳳梨
各데파ー트食料品店에잇슴
東京 桃屋發賣

吉州支局電話一一九番

폐병 부족증 늑막염엔 나오페ー(NAOPER)가제일


치질엔 엥구루(AENKUR)가제일


기침 해소엔 에치뻬ー(ECHIPER)가제일


체증 속병엔 겡오ー(KENGO)가제일


책임조제니약을써보아만일마음대로안되면어떠한책임이든지집니다
資本金百萬圓 朝鮮서第一큰藥業會社
京城府西大門電車停留場前(제일큰백옥양관)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眼科專門大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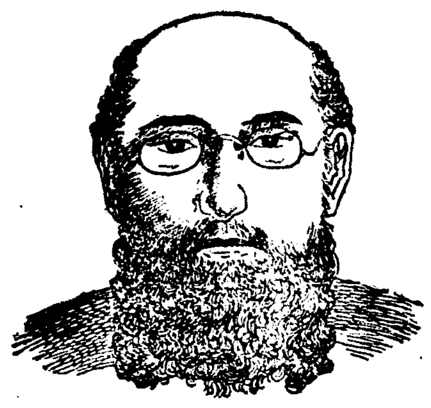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 龍藏氏
醫學博士 吉田 義治氏 推奬
醫學博士 山中 崔之氏
醫學博士 豊田 正達氏

한방울너흐니
아이 시원도해!

大學目藥

아프거나·쓰리지안코·爽快하게잘듯는

대학목약



適應症

○[illegible]안질 ○[illegible]目 ○淚眼 ○도라홈 ○血目 ○疲勞眼 ○다래기 ○麥粒腫 ○結膜炎 ○수시는눈 ○[illegible]目 ○흐린눈 ○光線眼炎 ○雪目 ○打目 ○상한눈 ○삽눈 ○진연질

定價

人造龜甲케-스付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케-스는二瓶入)	五十錢
補充用特大瓶付(同)	一圓
케-스업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大學洗眼藥 따로求할경우에는 十錠	十錢
廿一錠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發行所 大阪北濱 參天堂株式會社

體千兩 目九百兩

눈의治療에힘쓰라

眼疾原因은거의全部가 不潔과 榮養不良에잇습니다、塵埃와 煤煙과 때에더러운얼골과 눈을씻지안커나 더러운손으로 눈을문지르거나해서 眼疾이생깁니다、太陽의强한紫外線과 컴컴한電燈下에서 일을하거나 細微한文字를읽거나하는일로해서도 눈은 疲勞하야弱해집니다、눈이붉어지거나 눈곱이끼거나 좀아푸거나할때에 곳治療를加하면 病이되지안코말것이라도 治療를加하지안코 버려두는故로 病이되는것이며 病이된뒤에는 治療가길게끄는것입니다

眞正한 治療法과

눈을强하고곱게하는法

眼疾의眞正한治療法은 于先大學洗眼藥(目藥에添付)一錠을곱부半分의 熱湯에녹여서 시킨뒤에 까-제에 적시어 눈의안팟을 輕하게몃번이고 씻습니다、다음에大學目藥二三滴을 點眼합니다、이것을 每日三回 꾸준히 繼續하면 지금까지 좀처럼 낫지안튼 眼疾도顯著히 快差해갑니다。또、지금은 눈이 나뿌지안트래도 每日豫防해두면 眼疾이되지안코맙니다、그것은 每朝洗面後에大學目藥을 一二滴點眼하면 고만입니다、아츰엔눈곱이끼고해서 第一不潔할때오니 每朝點眼하시면 언제나 强하고 고운눈을保有할수잇습니다、特히 婦人의美眼法으로는 이것이 第一입니다。

大學은 權威잇는

世界的高級眼科藥

大學은眼科醫學의泰斗五大博士의推奬하시는바 治療力이極히强한目藥으로殺菌、防腐、收斂의効果와專賣特許製劑우르비올레긴이라는 紫外線防止藥까지配劑되엿는故로 단하가지로實로左의세가지作用을가젓습니다。

一、眼疾을速히治癒하는힘
二、눈을아름다웁게하는힘
三、紫外線의害를防止하는힘

따라서眼疾이잇는분이쓰시면 速히回復하고、健眼하신분이쓰시면强한눈、고운눈이되고、老人이쓰시면視力이回復되고바다와山에서쓰면 紫外線의害를밧지안코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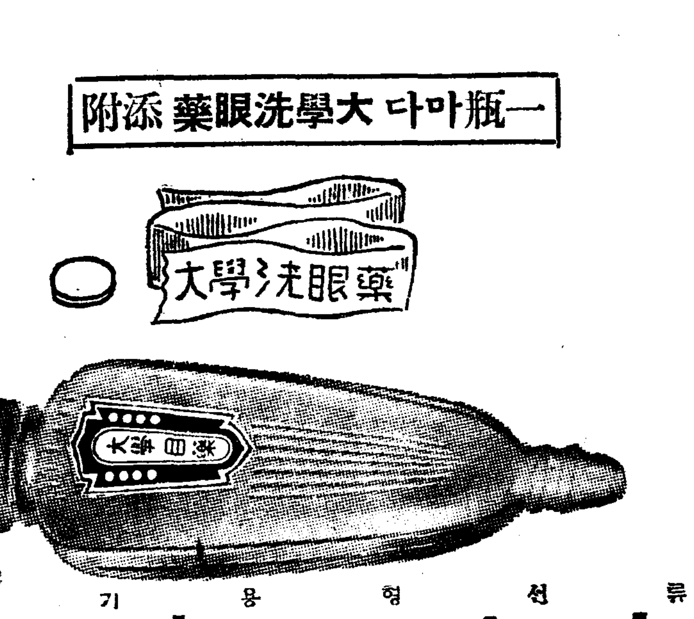
아이에겐小兒用大學目藥

大學目藥은조금도아푸거나쓰리지안코 썩爽快한氣分을주는故로아이들에게쓸지라도괜찬습니다마는 十歲以下의小兒에게는 小兒의눈에맛게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습니다

硼酸보다나흔大學洗眼藥

大學洗眼藥은 最新殺菌藥너이보르미친을 主藥을삼은强力한 消毒力과治療力과 點眼藥의作用을돕는 効果가잇는 洗眼藥입니다 大學獨特의創製品으로 完全消毒싸니-레프包裝을하야 大學目藥一瓶마다 添付하엿습니다 不足하실時는洗眼藥만의賣品도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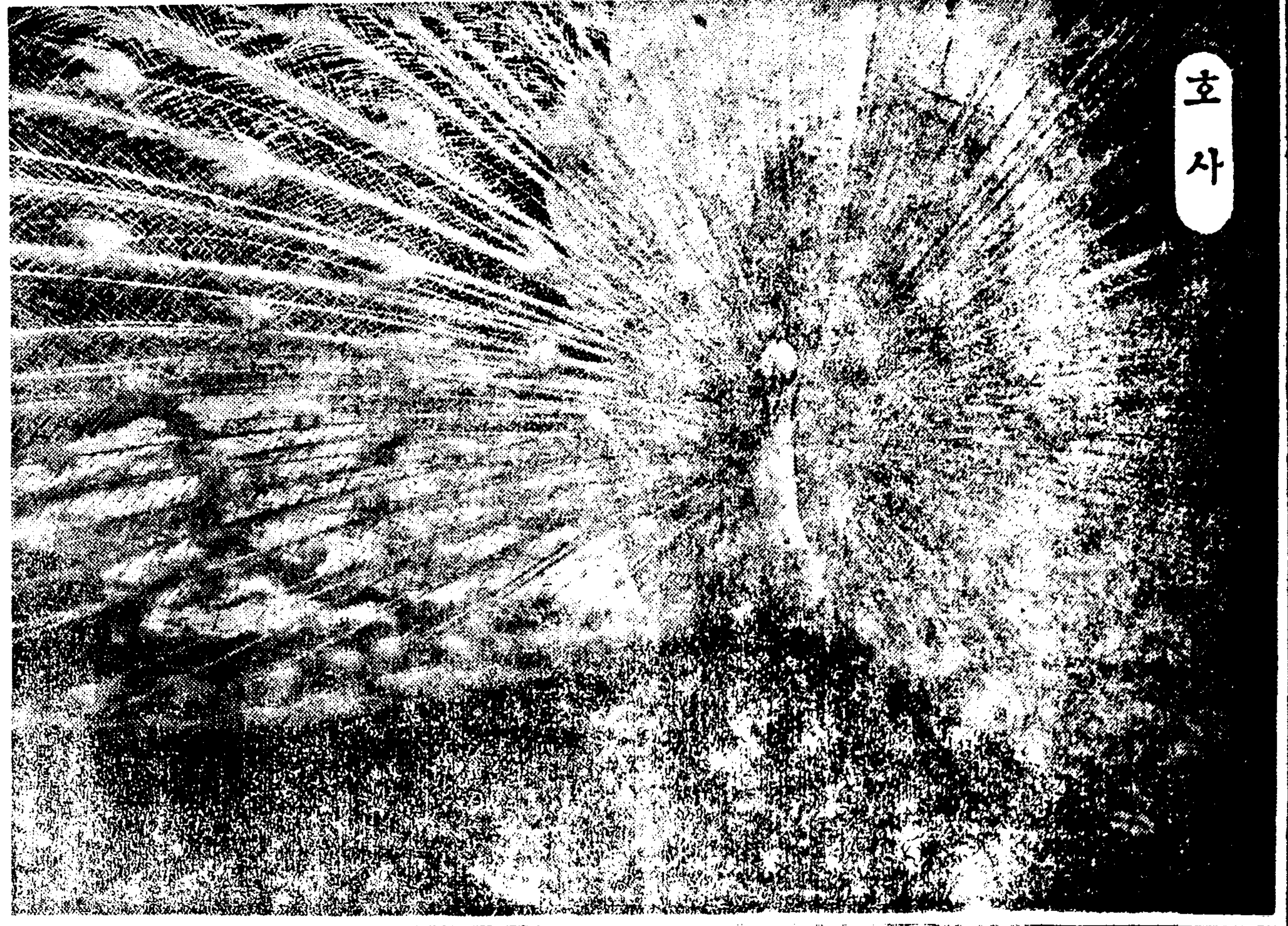
一瓶마다 大學洗眼藥 添附



류선형용기
流線型容器

스마-트하고便利한自動點眼容器

519



家庭

여름꼿
얼른시들지안케 병에꼿는법
라팔꼿도하로는넉넉가

요즘 꼿시절인데 우리가정에선 꼿을 그다지 대수롭게역이지안습니다 그러나 방안에 꼿한폭이 업서서야 어디 얌전한주부의 살림사리 솜씨타할수잇습니까

그런데 요즘꼿은 아름답고탐스러우나 쉬 시드러버려서 걱정입니다 이것을 얼마동안이라도 더생생을 연장시키기위해선, 아래와가튼 방법을 써주십시여

자양화(紫陽花)

꼿이나 입을 저즌실로지로차고 소금을 오십배로란 끌는물에 꺽근자리를 단거서 그물이다식을때까지 두엇다가 끄내서병에꼿습니다

석류화

이것도 잘시드는편이데화분에재의 명바가루를 한줌식 숩니다. 그리고 꼿나무 밴자리를 잘게새겨서 그가운데다 꼬저노코 뜨거운물을 조금식 붓는데 그부은물이 다식을때까지 두엇다가 끄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두서너시간 물에 담것다가심습니다.

금연화(金蓮花)

끈은자죽을 짓이기고 그자리에 소금을 문지르면조읍니다.

우미인초(虞美人草)

끈은자죽을 두갈내로 쪼개고 탈지면을 조고마큼둥글게 뭉처서 그가운대너코 그다음엔 번인경기(番人丁)에 담것다가 솟을 박은대로 옴겨꼿습니다.

라팔꼿

짜르는 자리를 이운집고 거기에 칙을 잔뜩발너두면 아침이술파할께 살어지는라팔꼿이라도저녁때까지 살아잇습니다.

이밧게도 수업시 만흔 화초를 일일히 들지못하거니와 아모래도 꺽근꼿은 시들기 쉬운즉 꺽근자리에소금을 문지르거나 물에약간 태여서 꼬즈면 비교적 오래갑니다

누구나시려하는 군색한살림 ③
무슨수로면할수잇슬까 비결은오즉저금에잇다

월괘저금은 매달 우편국에서 집금원이 와서바더가는것으로패금은 이원, 삼원, 오원, 칠원, 십원의 다섯종류가잇는데 기한은 이년, 삼년, 오년, 십년의네가지가잇습니다.

부스럭이 돈을내고 한꺼번에 뭉텅이돈으로 찾는것은 거치저금이 제일입니다.

이밧게 저축은행에서하는것도 잇습니다. 그런데 전부 거치저금 즉 어떤기한까지는 마음대로 찾지못하는 저금만하면 혹시 무슨 급한사정이 생길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엔 통상저금을 얼마가량해두고서 다시거치저금을해서 모히는것이 조켓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의저금법으로제일확실한것은 추수때에 얼마뚝잘라저금하는것입니다 한마지기에 두섬이 난다면 거기에서한말이고 말가웃은 눈딱감고 잘라떼여 저금을하고 또 돼지가 색기를 나엇다면 한마리파라저금을하고 또 뒷겻사파냥구나배낭구에 열린것은 집안에서 군것질로 먹어업샐것이 아니라따서 저금을 하도록 하는것이 조흡니다 농사짓는사람은 월급생활하는사람과 달라 수입이시간적으로 일정치를 못하니까어떤경우에 어떠케 돈이 손에들게되거든 그저 눈딱감고 저금하는식으로 하기전에는 저축이란 해볼도리가 업는것입니다.

현재의 농가는 전국에 약오백육십만호가량이나되며 농가의빗은 약육십억원 가치히나되어 한호에대해서 천원가량식이나빗을짐머지고 잇는셈이라 피땀을흘려가며 농사를 짓는대야 그빗변리조차 되지안허 패가하다시피하는 집안이 해마다 느러갑니다 그러나 그리유를 연구해보면 단순한 불경기때문만이아니고 농가의생활도 차차 문화적이되어 가족들의 소용이는늘게되고 아들딸 중학교에보내랴 라디오매랴 잡지를 사보랴…이러케 의식주전반의 경비가 불른데다가 옛날의 인습으로서 혼인이며 장사지내는때 돈을흐부처드리는버릇은 그대로 잇고보니 자연히 살기가 더어려웁겟은 정한이치입니다.

농촌에 제일돈만흔사람은 지주가아니고 돈노리하는패입니다 순박한농민은 그때문에 여간피를빨리며 괴로워하는게 아닙니다. 어떠케해서라도 촌에조흔신용조합이잇서 싼변으로 돈을돌려주고 또 저금도시키고 하지안허서는 안되겟습니다. 우선 농가의 저금으로는 우편, 은행의 편저금이조코 간이보험, 은행의 뜨더넷는저금이 잇습니다만 그외의 보험이라던지 정기예금가튼것은 일정한수입이 그때그때 일정하게 업는니만큼 오래계속해가지를못해 도리어 손해보는수가잇습니다. 그리고보면 우편저금이외에는 그돈을 은행가튼데갓다너흘께아니라 그마을의신용조합에 저금하는것이 그마을의 갱생책으로보아서도 조흘것입니다. 또빗노리하는 사람의 돈은안쓸것 책임자가 분명치못한게예를지마시요 농사일을한다고 밧테나논에만 매달려잇스면 드러오는돈이 한푼수뿐이되어 어떠케우에는 돈쓸일때문에 허더지며 하는수가 만케됩니다. 그럼으로 이것저것 부업을만히하도록 하는것이조흡니다 가령 가축을좀 친다든지 파수를 좀심는다든지 물고기를잡아다 판다든지……어떠케해서든지 잔돈을 끄러잡을 도리를 하고 또그것을 저축하는게 조흘줄압니다.

은어는 갓잡아마다보면 수박냄새가물씬
배리를뽑아낼것이업시 금방해먹어야진맛이나

시퍼러케 욱어진 나무닙그늘 맑은물줄기에 은빗나는 비늘빗이며 살처럼 다니는 은어—은어는 한실 초여름의 매혹그것이라 그들수잇는데 어떤은어딩은 청류의소공자(淸流의小公子)라 그까지부릅니다. 결단코 딱한물에 살지안흐며 모양의 아름다운점으로보아 소공자라고 할만도합니다.

은어는 일본내지의 특산이라고들합니다다만 조선서도 만수에서도 만히납니다. 은어를보고 사죽을못쓰는사람은 역시 일본내지인들이고 조선서는 은어고장사람이외는 그풍미를 잘모르며 만주에서는 붕어나송사리처럼 무데기를 지어노코 마구파니 여기에이르러서는 은어성하도 납작한 판입니다. 그러나 하도 일본내지사람들이 은어은어 하는바람에 대우가 아주달라저갑니다. 은어는 아무때나 잡지못합니다. 또 곳에따라 다달라 해금(解禁)이 오월에되는곳 유월에되는곳……이러케다릅니다 그래서 일본내지에서는 해금된데의것을 자바서 해금아직안된곳으로 비행기에시러날러 먹기까지합니다. 이지경되면 은어갑시 얼마나 비쌀지 짐작되지안습니까?

은어는계조(桂藻)를먹고살기때문에 해금내가나기는커녕 서선한수박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향어라고도합니다 계조라는것은 산자수명한곳 청류에서만나며 돌때벗겨진산기슭 딱한물에는나지안습니다. 어쩌다난대도맛이업습니다 또요근래에는은어를 양식하기도 합니다만 진짜은어맛은낼수가업습니다

어쨋건 민물에서나는고기는 갓잡은거래야 가치가잇스며 더구나 향기를생명으로하는 은어는 산듯을방 요리해먹지안어서는 진맛을 모릅니다. 내에서자바 세시간이상지나면 벌써 맛이변하고마릅니다.

산채로 큰그릇에넣어에서 어두고 자비내어 요리를해먹는집이 잇습니다만이러케 사놓도역시 메기의판게도잇고 여러날지나는 동안에살이내려진맛이나지를안습니다

은어는 칼자를 밧기지안코 그대로먹어야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칼자를 밧은은어라면 참으로 오래된것이분명합니다.

은어도역시 다른생선처럼 소금뿌려굽거나 지지거나해서 먹을수잇스니 제일맛나기는불시가에올노코정작을피워놓을 달구고 그불우에 은어를 올려노아 굽습니다 구울때에 물가장자리에있는 편장으로 달뭉치로 구어먹는것입니다

우리차지
알수업는노릇

순이가 어머니께 엿주어보앗습니다

『어머니는어데서낫수』

『나는 의주서낫다』

『아버지는』

『아버지는 함흥서』

『나는』

『너는 서울서구』 모두

『그참 이상하우. 다른데서 낫는데 어떠케 이러케가치사우』

(홍은사람 최노연)

애기는언제부터 『응가』와『쉬ー』를 제혼자서하게되는가

애기가 『쉬ー』를 한다거나 『응가』를하는것은 언제쯤돼야 저혼자서 할수잇슬까? 여기에 대해서 도쿄지의 사내애二八五六二명에 대해서 조사한결과 계집애 사내가 달르지안음으로 남녀애를 다한데합해 따저본즉 (밤오줌싸고나제에만) 저혼자서오줌누는 그루에가서 하고오는아이가—

▼만한살 못개월이하는 한아이도업고

▼그이상 만두살까지의 아이가 전체의 사퍼ー센트(전체를 백으로치고 그가운데에 네사람)

▼두살부터 두살반까지게 이십오퍼ー센트

▼두살반에서 세살까지거 사십칠퍼ー센트

▼세살에서 세살반까지가 칠십퍼ー센트

▼세살반부터 네살까지 팔십퍼ー센트(즉백에여든)그이상은더만습니다.

이러케 대체로만 두살반부터세살까지되면 백에오십은 혼자쉬ー를하게됩니다.

그다음에는『응가』를 저혼자서할수잇는나이인데

▼만한살반이하는 한아이도업고

▼한살반으로부터 두살까지가사퍼ー센트

▼두살서부터 두살반까지가 십이퍼ー센트

▼두살반에서 세살까지 사십구퍼ー센트

▼세살로부터 세살반까지가 오십칠퍼ー센트

▼세살반부터 네살까지 칠십삼퍼ー센트

▼네살부터 네살반까지가 팔십륙퍼ー센트(그이상은돈습니다)

이러케노코보면 대체로 네살반이되면 제혼자서 응가를할수잇게됩니다 어른이한이상은 별문제로하고 어른이쉬ー나 응가를 잘보아고못보아는데 따라 혼자서 하게 되는시기가 일르게도 늣게도 될수잇는것인데 절대응가는생후오륙개월부터 매일아츰 점먹인뒤에 쉬ー는난지일개월부터 한시간반마다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꼭그어머니가 꼭그장소에서 꼭그목소리로『응가응가』한다거나『쉬ー』소리를 해가며 뉘어줍는 습관을부처주면이니 그다음에는오줌이나똥을아모데나 싸거든 너무꾸지지말고 잘타일르면서 기저귀를 가라채어 똥오줌을 싸서 버번을 헤슬때의 불쾌한기분을이시하도록 해야할것입니다

長篇小說 愚氓 【37】
朴泰遠 作 洪祐伯 畵

白主事의집 (三)

처음에는 그저 영감이 그의 조상에게서 바든 전장이나 넉넉하여 그래 일을 안하고도 편히 먹고 지내는 그러한 팔자 조흔 사람이거니—하고도 생각하엿섯다. 그러나 차차 알고보니 그것이 결코 그러치가안흔모양이다. 남들의 하는 말을드러 보면, 그는 원래 이곳사람이 아니라 한다 지금으로부터 한 이십년전에 어데선가 빈손으로 굴러들어와 가지고, 혼자 어떠케 어떠케 하여 자수성가로 이만치되엿다 하는데물론 그 자세한 내막은 아모도 모르는 모양이다. 워낙 궁금하기로 말하자면 그것부터알고 틈일이지만 그러한 지난일을 이제 와서 캐여내 보자는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부터라도 조흐니 다른이들안테는 어떠튼 아나인자기에게만은 모든것을 일러주어야 할것이 아닌가?—옥화는 그러케 생각하는것이다.

장사를 하는 사람가치도 안컨만 영감은 곳잘 집을 떠난다. 옥화가 잠자코 잇는 어상 그는 단 한번이라도 무슨일로 하야 자기가 어디를 가는것이라—한마디 시원하게 말하는일이 업다. 물어 보댓자, 저영마저 못해서, 그저『서울』이라거니 혹은『안악』이라거니 하고 입안말로 중얼거릴뿐. 대체 그러한 곳에는 어떠한 긴한볼일로 가는것인지 단한번 알려준다는 법이 업다. 그러니 그『안악』이니『서울』이니 하고 일러 주는 그것들도 파연 머들수가 잇는것인지 대체 누가 보증할수 잇스랴?

자기에게 호옥 미운덤이라도 발허서 영감에게 귀염을 못밧는다든지 그러것은 오히려 견딜수 잇슬지도 모른다. 허지만 이제부터 한평생을 서로 의지하여 살어가야만 될 내외사이에 피차에 밋는 마음이 업서서야 어찌 하겟느냐? 그것도 서로 안 당조 가는편이야 호옥 사람 마음이란 알수 업는것이라 하여 제속 남주지 안는다는 수도 잇슬께다. 허지만 한집에 살기는 여섯달이나, 서로 정들기는 이미 일년이 넘은터이요, 더구나 뱃속에 어린생명은 내월이 바루 납탑이다 그러한터에 이제도록 모든것을 자기에게 숨긴다 하는것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상하다. 암만 하여도, 단지 자기라는 여자가 못미더워서 그러는것만이 아닌듯싶다. 언제가 영감에게 온 편지를 무심코 뜨더보다가 참말이지 단단히 혼이낫섯다. 아모리 내외사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온 편지를 그러케 함부루보아서 쓰는것이냐?—하는게지만 고만일을가지고 책하는것으로는 그당시의 영감 눈비치 너무나이상하엿다

(그냥 내가못미더워서 그러는게 아니지, 아니야. 필연코무슨 기픈 곡절이 잇서서그러지 잇서서 그래……)

그러기에 이제도록 반년이나지내 보아야 집에서 손님 한번 청어 본일이 업는게 아니냐?

별로 친구와 상종도 하는일이 업는 모양인데, 곳잘 밧게 서취해가지고 도라오는 일이잇다. 취하엿슬때는 그대로 말끔은 울연이서 무어멀리서온 손님과 저녁을 가치먹느라고 그랫느니 이야기를 하느라 느젓느니 한다. 그러나, 그델리서온 손님이라는것이 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느도록 마주안저 하엿다는이야기가 어떠것인지—그러한것에관하여서는 일체 아모말이업다. 참말 귀하고긴한 손님이라 하면 반드시 집으로 청하여다 대접을 하는것이 보통이련만이날이 이때까지 손님이라할 손님을 사랑방에 끌어드리는 모양은 볼일이업다.

(곡절도 이만저만한 곡절이아니지. 무슨비밀이——그래 정녕코 무슨 비밀이라는게 꼭 잇지 꼭잇서.)

옥화는 곳잘 눈을가느다라케 뜨고 아랫입술을 빼주욱이 내밀어보는것이엿스나 그러한 영감이오늘은 대체 어찌된일인지 도무지 전례에 업게스리, 서울서 귀한 손님이 나려오니 집으로 청하여다 대접을 극진히 하여야만 한다고 분부한다.

(전고에업시 어떤 화상을 끌고오나, 어데 한번 볼일이아니가?흥)

미상불 호기심이 업지 안허 아옹다옹된 배를 부둥켜 안고서 손수 부어크로 나려와 할멈을 지휘하여 가며 한참 부산하게 상 차리려니까, 마침 대문밧게 자동차 닷는 소리가 들린다.

옥화는 불이나케 중문으로 나가 밧글 엿보앗다.

第20回 學生美術展覽會

會期 十月中 場所 本社大講堂

出品種別

◇中等部 ―師範部・中學部―
- 東洋畵科
- 西洋畵科 ―圖案畵包含―
-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 自由畵科
- 手工科

褒賞

【中等部】 特選 各科若干人各 正賞賞牌 副賞五十圓 / 優選 各科若干人各 正賞賞狀 副賞三十圓

【初等部】 特選 各科若干人各 正賞賞牌 副賞二十圓 / 優選 各科若干人各 正賞賞狀 副賞十圓

◇特別褒賞 本社社長賞 一人百圓 (特選作品中에서一點을選하야特選賞과兼하야授與함)

◇申請及搬入＝申請과搬入은 同時에하되『京城府太平通朝鮮日報社事業部』로 期日은 九月二十七日까지

◇出品規定＝本社所定의 申請書에 各項을明細記入하고 作品背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 作者氏名 住所와 所屬學校學年別及年齡을 明記하야 搬入함 (詳細規定은 葉書로 問議하시요)

主催 朝鮮日報社

第一劇場
六月二日부터四日間大公開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孤高의藝術作品豪華選擇
佛蘭西아르바트로스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どん底
脚色 시미아데인·콤파네ー스氏
音樂 쟝·후노함ー氏
主演 쟝가반氏…쥬나ー아스톨ー氏
구리도내쇼날超大作全發聲日本版
深海의野獸
原作…호레이쓰·리크와그나ー氏
監督…레이푸리ー도젠氏
主演 워레스·가스엘大尉
松竹大船超特全發聲
君にささぐ花束
監督…深川修造氏
主演 川崎弘子 御大寺伸 大山健二 三宅邦子 小林十九二 水島亮太郞

東洋劇場
劇團豪華船大公演
六月一日밤부터 五日間
▲上演劇目…宋影作
『純情無邊』 三幕五場
南宮春作
『울기는웨우나요』 二幕
◇豪華特別興行 晝夜二回◇
豪華映畵演劇幕間
實演 쌀안짜스밴드 獨唱 美姬出演 合同公演
六月一日부터(五日間)府民館에서 每夜七時正刻開演!!
一、二、三日(三日間)靑春座藝題 『靑春座豪華船聯演大會』 林仙圭作
四、五日(二日間)豪華船藝題 『사랑에속고돈에울고』 前後篇 李瑞求作
『어머니의힘』 三幕五場 幼年名優林美花孃主演

若草劇場
五月三十一日より 七日間
大奴隷船
朝日ニユース
大每ニユース
太陽の子

6・40	3・00	11・30
6・50	3・10	11・40
8・25	4・45	1・15
8・35	4・55	1・25

(1) フオツクス作 ワーナー・バクスター主演
(2) 東京發聲製作・東寶提供・大日方傳・逢初夢子主演 原作 [illegible] 脚色 八木保太郎 演出 [illegible]

本報鎭島支局 本局三八八六

優美館 電光三九五
六月二日부터特別大封切
英國고ー몬社超特作日本版!
巨匠알푸렛드히치콕그氏大作品!
間諜最後の日
마데레누가롤孃 로바ー드다ー낫그氏 主演
東寶映畵超特作全發聲
新柳櫻
露立のぼる 佐伯秀男 主演
全勝키네마超特作全發聲
韋駄天街道
松本榮三郞 主演
東日大每ニユース班特輯 支那事變戰線ニユース

明治座 松竹キネマ
5月1日ヨリ6月5日マデ上映時間表

いろは系圖		1・54…3・16	6・30…7・55
ニユース	11・00…11・25	3・26…3・51	7・58…8・23
十三番目の椅子	11・28…12・33	3・55…5・00	8・26…9・31
永遠の感激	12・38…1・49	5・05…6・16	9・35…10・46

次週豫告 (人の氣も知らないで / 大學祭)

鳳來傳 (中)
【小……品】
李殷相

우리는 鳳來의 幸福을爲하야 가지애를썻다。그리하야 鳳來의將來를約束짓고同伴할 雌鷄한마리를 드려왓다。

鳳來는 우리와 떤곳에서 먹고 딴곳에서 자는것을실혀하엿다 그러나 이제天生의因緣까지 매저주엇스매鳳來에게對한 우리의 義務는 이로써 끗난것이엇다。

우리는 어떠케나 기뻣든지 모른다。鳳來가 새살림을 시작뒤로도 우리는無時로 鳳來의집을 訪問하엿다。鳳이는이제 의젓한 家長에 훌륭한 主婦노릇을하는것이엇다。

그리하야 鳳來의 新婚家庭에 몇日이 지나갓다。

어느날밤! 子正이 너머 鳳來도 잠이들엇거니와 우리도 모두 잠든동안이엇다 갑작이 어디로서 부르짓는소리가 우리의 잠든귀를 찌엇다。

나는 깜짝놀라 고함을지르며 門을박차고 나가 鷄舍를 켜다。후닥닥하고 날아들어 내품에 안기는것은 (어찌하랴!) 우리鳳來이엇다。

다시보니 鳳來의 목에서 피가흐른다。엣날 찌저젓든 그외편목에서 피가흐른다。삶이가 묵어가다 내鷄籠소리에 노치고 달아나자鳳來는 날비잇는 내게로 救援을 어드려 달려든 것이다。

구든다 옛鷄籠을·도엿엇고나。幸福의 보금자리를노리고잇든 삶이의 배를 또바리고나。이러한 생각에 나는너무나 가엽서 鳳來를안우채떨며 노치를 못하엿다。

이번에는 다시試驗삼아賣買를노치어 그상태를 부쳐주엇다。

生命이란 지구저거이어서 두번이나 傷한그곳이 또다시갈라가라 나하지고 에미로제生을 누리노리먹고 자고뛰어다니는것이엇다。

『鳳이가 알을나앗서!』

어린것이 白玉가튼 알한개를 주어들고 房으로 뛰어온다。우리는 鳳來가 나흔 첫아기를들고 어찌할줄몰랏다。따뜻한 그알을 쌤에대고 生命의創造를 祝福하는 同時에 不幸한 鳳이어미의 옛過去도 이가튼한때이엇든것을 생각하고生命의神祕와 運命의야릇함에 옛번이나 고개를 그덕이엇다。

다시 몇日이 지난 어느날 어떤親故가 나를차저와 鳳來를 自己가 기르겟다고 請한다。나는 承諾할수가업섯다。

『다른것은 몰라도 鳳來만은 내어줄수가 업다』하고말도 못하도록 손을 내어저엇다 그러나 그는다시말하되

『나도 鳳來의 過去가 그런줄을 알기때문에 請하는것이니까 期於히 저鳳來를주어야겟네 내가 자네보다는 더잘기를 自信이 잇스니까』

나는 그말에 다시한번생각하엿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저는나보다 富裕한 사람이다。나는 鳳來를爲하야 오막살이를 지어주엇다。그러나 저는 훌륭한 住宅을 지어주리라 나는 변변치못한 모이를 주엇다。그러나 저는 훌륭한 珍味를 鳳來를 먹이리라。

그러타。鳳來를 爲하고 鳳來를 사랑하기때문에、나는 鳳來를 저에게 주어야겟다。

鳳來의 幸福을爲하야 나는 울거히 내게오는寂寞을 마저야겟다。

내가 그를사랑하기 때문에 내所有를 삼아야 한다함은 내享樂을 爲한 적은마음이다。나는 그를 사랑하기때문에 그의幸福을 爲하야나보다 富裕한 저親故의 집으로 보내야겟다。그리하야 우리는 섭섭하게도鳳來와離別하엿다。

나보다 안해와 어린것이 더하엿다。大門밖까지 鳳來를 餞送하고 들어온우리는 鳳來의집을 바라보앗다。鳳이의엣집은 쓸쓸하엿다。시집보낸딸의房가티。

(知)(識)(階)(級)(論)
[一]
現世에對한理解와愛着 調和를想望하는時代
白鐵

人間은 恒常限定을 바드면서사는存在나 그는언제나 一定한 時間과 空間의 限定된交點우에서 生活하는때문이다 그러나 同時에 人間은 恒常 무엇을限定하면서사는

一積一 極的인存在다 오늘날에잇서는 後者의 立場을 더욱 重大視해야할時期다 그러나도不拘하고 요지음 우리들은 그立場을 너무 等閑히 봐오지안엇슬까저어도 우리들은 於此 이時代에 對하야 될수잇는대로 아무規定을加하지안코 曖昧한態度로 無事하게 지나는것을 唯一한 處世道로 삼어온것이事實이다 그것은 大體로 現世는 다른時代와比하야 規定하기가어렵고 또 지금까지는 理解하는것이 無理한일이기도햇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까지나 限定이업시살수는업고 또現在는무엇을 限定할수잇는 時期인것가다 무엇보다도 우리들知識人으로서 自己가 處해잇는時代에대하야 아무意識과 規定이 업시산다는것은 知的인 生活로서 無意味하고 滑稽스러운일이다 아무리 無理로라도어떤 肯定的인 理解를하고 그理解에서사는價値와

一意一 味를發見하는데서 現世에대하야 하나의 積極的인愛着을 갓지아코는 살道理가업는것이다。

勿論우리들은 現世에나타나는 諸面場面에 그대로 積極的인 價値를 둘수는업다 바레리―의말파가티 今日은 事實의世紀다 그것도 너무 偏僻된事實과行爲가 過溢한世紀다 이事實의 世紀그것만을 아무리 파라프레―스해 봐도 거기서 곳 積極的인 價値를 發見할수 업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現實을理解하는데잇서 그것만을 그대로 파라프레―즈하는 代身에 그것과다른價値를 바꿔놋는法을 알고잇다 우리들이 日常的인 經驗으로서 生理的現象을볼때에 生의繁營을위하야 氣管의 呼吸도必要한것이나 食道의길을 열기위하야는 會厭軟骨이란 瓣이 當分間、氣管을 막어버리는 現過가잇다 이것을 現象學者的으로보면 本質을 追求하기위하야 現象을 無視함이아니되 當分間 그대로『다더둔다』는 一種側坎音을 默過하는것이다 여기서事實의世紀를 價値의 世紀로바꾸어서 보는것이다 그것이다 이現世에對하야 價値의世紀를 때面에 設定하는데서 今日에對하야 積極的인 意味를 찾사는것이다 이두가지의

一關一 係를知識人自身의現實로서 볼때에는 今日은 知識人에게잇서 知와 肉體가 서로 離叛되어잇는 時代다 이때에잇서 그離叛된 現象을決코 忘却하는것이 아니지만 하나의 本質的인 思想을찾기위하야 그現象을 그대로 다더두고 背離의彼岸에 調和를 希望하는것이다 여기서 調和를 希望한다는것은 다만 暗黑뒤에는 반듯이 光明이온다는辯證法의槪念에 樂觀的으로 몸을委托해버리는태도는아니다 더구나 그것이 한된 하나의空想일理는업다 그것이 意識이요 暗示的이요 豫言的인限에서 幸想은하나의 思想이다。그리고 知識人은 恒常 思想우에서 사는人間이며 그思想을 通하야 先驅的으로 未來를 提示한다。

知識人에게 그와가티 肯定的으로 調和를 提唱하는것은 다만 나의 主觀的인 獨斷은아니다。요지음 東京方面의 저널리즘을 風靡하고잇는

一知一 識階級論을 보아도그것은 漠然한 가운데서나마 확실히 하나의 肯定的인 側面을 前提하고잇다 그리고、世界의 賢明한 知識人들例를들면 베룩송、토마스·만 바레리―等을 代表하야 世界의 知性이 混亂과 矛盾을 是認하는 따편에서 하나의均衡을 찾는 積極的인 傾向을 볼수잇는것이다。

그意味에서 나는 今日을 肯定的인것 積極的인것이 지금까지의 混亂에代하야 시작되는시점이라고 생각한다。나이덧게일이아니라 새로운 우는소리에世紀의 熱人이 귀를기우리게된時代라고본다。여기에대하야 좀더 具體的인 意味를加하야 그傾向에대한토마스·만等의 暗示的인 例를 한둘引用해보자!

思想과 行動問題에잇서『베룩송』은『今日에 생기고잇는 政治的諸問題 社會的國際的諸問題는 各樣의意味에서 人類의肉體와精神 두사이의不均衡을보이고잇다!』고말하고잇는데 여기에대하야『토마스·만』은 『尺度와價値』를

一設一 定하고잇다。偏僻된主觀에대하야 尺度와價値를 主張하는것은 調和를 希求하는古典的인爲實的인·精神이다

그리하야 西歐의 卓越한 學者들이 欣求하는것은 今日의機械가 人間相互間의不平等을 激化하는것이나 未來에서는『機械는 人間努力의 大節約을 許하고 物質的인 生産을 豐富히하며 그것에依하야萬人이 精神의設備한 活動―文學、科學、藝術、哲學―에 從事할만한 餘暇를주는時代』卽物質과精神이 調和되는『全體的人間』과『綜合的人』의時代이며 人間的인것에잇서『內的과外的世界가 서로同化』하는 時代이며 바레리―의 이른바『純粹한 知的努力의 饗宴』을『生起하는時代』인것이다 今日에잇서서 調和를希求하는것은 比較的良心的인 學者나 比較的知的인 學者들에잇서맛찬가지다 그들은 꼭가치 人間의氣品 自由와正義 尺度와價値를要求하는 精神을갓고잇스며 現代人의 形成에잇서 均衡과調和的인것을 探求하고 잇는것이다

漢詩
桐岡考選

題梨花　押香

佳作之七　全州府南水町二七四番地　樵山 李舜載

千紅萬紫蕩春光、
白白胡爲獨出墻、
怨女宮中門自閉、
謫仙詩上雪猶香、
即看濆泊同梅李、
可愛繁華勝杜棠、
莫歎從今零落處、
也應珍果及秋嘗

『青 衣』……李馬銅氏個人展自六月一日至五日――於和信개라리―

뒷골목
◇平壤雜記帖◇ (五)
金南天

▲날파람

『괴양개명』서는 石戰을 크게하는사람을 어덧슬때 듯고서 몹시 놀래엿든 記憶이 새록새록하다。멧十名식 패가 갈려서 돌팔매질을 처가면서 편싸옴을한다는것이다。

빰따귀에 멍울만저도 診斷書訴소리가 요란한세상에、이건 대가리가 열조각이나고 목숨이 明滅에잇서도 찍찍소리못한다니 어린마음에도 몹시 놀래엿던것도 無理가 아니다。

우리어렷슬때까지 果然 이런짓이 平壤風俗에 남어잇섯는지는 똑똑히 알수업서도 엣날에는 이遊戲가 一種의競技처럼 盛行햇든것이 事實인모양이다。平壤的보를 갈시이면 돌팔매질은 배워둬야한다고、허리끈에 자갈돌을끼워서 휘휘내돌르다 휙 때던저서 一二三十間마주쪽에잇는 바위를 마치는 눈부시는재주를 다노라고 毎日처럼 江가에 나가던 어린때의 記憶이 지금도 남어잇다。最初의『林巨正』을보노라면 巨正이 部下의一人에 돌팔매名手가 나온다。어듬이나라나서 겨우는대로 相對便의 대구리고 눈두덩이고 뒷데석기고 함거업시 뜨리마치는籌을 보노라면 나는 흥앙 어린時節에드른『괴양개명』의石戰이야기를 聯想한다。痛快스럽고도 또한 勇猛하기 짝이업는 鬪技이고、武術이다。

그런데 열네살이되어 잔득 怯을줍어안고서 平壤에나와보니、요행石戰을하거나 돌로차우자고 덤벼드는사람은 업섯다。그대신 石戰의遺物인지變形인지는 몰라도 쌈움이大端히 흥하엿다。돌로차우는것은 아니다。갈기고、밧고、차고、우바씨르고하는것인데 이것이 兩人끼리가아니고 편쌈이되던 所謂『날파람』이다。

四五年前 까지도 여름날저녁에서 밤이으슥할무렵이면가끔 영문압일큰길거리에서 또는 神宮압廣場에서 이날파람하는 光景을 구경할수잇더니 아직 그 철이아닌 때문인지 이번에들려서 이곳 저곳차자보아도 그것을 發見할수는업섯다 친구를잡고 여름이면이러것을 볼수잇더냐고 무르니 再昨年 昨年에서 漸漸날파람하는 光景을 차저보기는 大端 힘들어졋다고한다 날파람은完全히 平壤에서 자취를 감초아버린것일가。

별서 十四五年前일이나 옛말처럼 이야기하지 안흘수업게 되엿다。영문아과라면 지금은 길이 활쌱 넓버지고 新倉里길에서 景昌里、新陽里로 휘여도는 뻬스停留場이 생기고 將別里로 通하는 넓은새길이 터저서 恰似히 서울에 洞네거리처럼 四通八達의 要衝地가 되엿스나 예전에는 上需里로 올라가는길이 잇슬뿐으로 徐元俊의 發銃事件發端으로 有名한 새수구『다리』쪽에는 언덕이저서 羊의腸子가튼 적은길이 잇섯고 將別里、明倫里로 넘어가는길에는 노프던덕이저서 겨울에는 氷坂때문에 步行이 困難하엿다。그러므로 大部隊의 移動이나 進攻이 可能한 넓직한 길은 新倉里에서 영문쪽으로 휘여도는 기역字形의 한줄기가 잇섯을뿐이엿다。여름철이면 밤마다 이길가운데서 날파람이 버려젓다。상알派와영문압派의 對陣이다。

저녁을먹으면 나는下宿을나와서 곳잘날파람구경을하러 이걸어구로 내려왓다。

잘못하다간 날파람꾼으로 간주되어 逐殺을 當할수도잇스므로 從軍을하는 觀戰으로 觀戰하여야한다。

처음에는 相當히 먼距離를 가운데두고 두派가 對陣한다 十歲前後의 아이들이 先陣을서는데 두편에서 다섯여섯뒤여나와서 서로 다리를들고어르던다。陣中과 陣뒤에는 二十前後 때로는 三十줄에든壯年들도 섞기여섯다。이들은처음 參謀格으로 觀戰만한다。

지금 新式말로는 便衣隊나斥候兵이라하겟지만 날파람은語로는『겻돼기』라는게잇서서두세놈이 陣에서며나 敵쪽觀戰席속에 석기여잇다가 戀愛보아『섯가란』『나간다』 소리를지르며 敵의先陣을 前後로부러 날겨들어서 戰端을 여러노코 奇襲을斷行한다。

觀戰과 洗錬된戰技는 混戰과 白兵戰에 가장適切하다。두派가 서로어울려서 차고밧고함때에 猛將의活躍은 번갯물 그대로다。예서번적 제서 번쩍、다리를 들고『어른란』소리가 날때에별서 떡!하는 소리가 이러난때이고 이여서『아이쿠』대목에 파김치가되어서 꺽구러지는편이다。어린놈들이 저이끼리 부러서도라갈때에 어른들의 날파람이드디어 白熱化한다(此項續)

鄕土文化를차저서
第四班 濟州島行
―(三)―
濟州島와 女子
方鍾鉉

내가 俚言을 모흐기시작한지도 어느덧 다섯해나되어온다 數年前에도 나는學友金思燁君과 함께 島嶼의 俚言이 陸地의그것과 얼마나 다른것인가를 比較코져하야 朝鮮南端의 多島海사이를 돌면서 여러곳을거치어 이濟州島까지 단녀간일이잇다

陸地는 陸地대루 섬에는섬마다 그風俗 그事情에 딸아 特徵잇는 俚言이 形態조차다르게생겨나는것이 또한 自然한 일이라고보겟다

이제 濟州島의 俚言을몃개만 들어보면

갈치가 갈치꼬리문다

이것은 다시 다른地方의 俚言에서 볼수잇는

망두기 제동무 잡아먹는다

라는말을 생각나게 하는것으로서 即

제가채 좃난다(自皮生蟲)

의 말보다도 좀더 심각한맛을 나타내는말이다。

짐진사람이 팡을 찻고

이것은 목마른사람이 샘(우물)을 판다는말과 가튼것이니 팡이란것은 짐을 내려노코 쉬여가기에 편하게된 언덕을 이름이다 그러나이 말에는 두가지뜻이 잇스니 아래나오는 俚言에서도 볼수가 잇다

저드ㄴ사람은 산짓물에가 두 궁근팡에 안는다

저드다고함은 거저항을할함이요 산짓물은 濟州邑內에 잇는 山地泉이니 이城中人이 飮料水로서 貴重한 샘이다 이샘이 흘러나리는 그泉下에서는 언제나 빨가리 洗濯을 분주히 하고잇는것을 보나니 팡이라고함은 이洗濯場에 노힌 빨래돌을 가라처한말이라 여기노혀잇는 여러개의 팡가운데에서도 저드는사람은궁그는돌에 안게된다함이 여뜻이다 밥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하는 말을 연상케하는점이 잇다

숭이 어시난 며느리다리 두 히영하다

이말의뜻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숭을 잡아내다못하야서 심지어 그다리의살비치 히다고까지 숭보를 이룸이니 即 며느리의 발꿈치가 말갈알 갓다는 말과 합해볼때에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두사이가 一般으로 조치못하다는것은 아마 동양에서는 마찬가지로 공통된 폐단일까한다

더운죽에 파리 날러들듯

더운죽에 파리가 달려든대야 빠저죽을것밧게 다른길이 업스니 마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或은 해변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하는地方도 잇다)라는 말과 함께 自己에 해로울것도 생각안코 함부로 덤벼든다는것을 말함이다

주녕의짝되에 애를 내쥬

주녕이는 지네란말이요 짝되는 됫박이요 애는 창자니 이전체의뜻은 되지안흘일을 되다만해서 即 빈한한사람을 더욱 곤란한데로 몰아너을때에 쓰게되는말어라

여러俚言을 다 시흉수는업스므로 俚言석긴 民謠一節을 附記하므로써 끄치고저한다

아침나직 똘나은어멍
상지딸랑 모난말랄라
모난놈에 정마장새라

新人詩叢
瓦斯燈
金光均

차단―한등불이하나 비인하늘에 걸려잇다
내 호올로 어데가라는 슬픈信號냐

긴― 여름해 황망히 날애를접고
느러선高層 창백한 墓石가티 무르러저
찰란한夜景 무성한 雜草인양 헝크러진채
思念 벙어리되여 입을담을다

空虛한 群衆의 행렬에 석기여
내 어데서 그리무거운 悲哀를 지고와기에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어

皮膚의 바까테 숨이는 어둠
낫서른 거리의 아우성소리
까닭도업시 눈물겹고나

내 어데로 어떠케 가라는 슬픈信號기
차단―한등불이하나 비인하늘에 걸려잇다

捲土重來의藝術堅戰
第二回全朝鮮男女音樂콩쿨

一開催期日…九月中旬　一申請期日…九月五日

一曲　目…二曲을演奏하되一曲은本會指定曲을取하고一曲은隨意로함

【聲　樂】(1) Der Wanderer(放浪者)=슈벨트　(2) Ave Maria (아베·마리아)=슈벨트

【피아노】 Impromptu (卽興曲) No. 4 (作曲九○)=슈벨트

【바이올린】 Concerto (協奏曲) No. 6 (B Flat) 一樂章=토―데

【發　表】 本社事業部에서實費로頒布함

一參加資格…全朝鮮男女로하되聲樂은滿十五歲以上

一申請規定…申請金二圓과伴奏料一圓을申請書와함께本社事業部로交附함 (但申請한뒤에는申請金을一切返還치아니함)

一褒　賞…入賞된분에게는本會로부터콩쿨賞을授與함

一審查委員…金永煥·洪蘭坡·朴慶浩·玄濟明·桂貞植·金元福·鄭勳謨·朴泰俊·李寅善·金載勳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岐路 (二)
本報 當選作家短篇리레―
金廷漢 作　崔根培 畵

질두덕에 다리를 뻬고안저서 아들에게 별가린 쪽부쟝이꼿을 이것저것 꺽거주고이도두보는 온파를 보고 몹시 기다렷다는듯이

『무스소마들 그리케오래봐!』

나무란다는것보다 오히려 착란발조렷다

『그럼 얼마나 참엇다구요!』

은파는 다시 일감이를 비다업으며

『개꿈인가 똥꿈인가 아러덜엇소?』

『누가 안담 가봐야지』

그들은 다시 낫설은 길을재촉햇다 얼마못가서 황혼은 담밤으로 물아젓다 깊은 여방강까를 떠나서 산속을 더우잡고 언덕위는 아마 고구마 밧솔이인가 여기저기 희끄므리한 허수아비들이 어슷비슷 서인는데、간혹 보이는 동물걸린 막에서는 잇다금 즘생을 쫏는 사람소리가 무시무시하게 나고、께어진 양철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렷다。그럴때마다 온파는 엉거주춤하고 선 남편겻해 뻘듯이 부러서며 진저리를 내엿다。그러다가 어느 외진 산모퉁이에서 마층내 그들은 과연 즘생을 맛나게 되엿다。

『의키! 이―야、이―야!』

두보는 엉겁결에 그만 발이 딱 들어붓고서 새고함만 내질럿다。

다행이 산도야지 떼엿다。어민듯한 마리 소가든놈이 앞장을 섯는데나이가 들어서 귀구멍이 막히엿인지 여간 소리처도 별로히놀나지도 안코 주정가지만흉식한 새끼를 여얼곰마리 죽―거느리고 늠실늠실 그들의 코앞을 지나간다。

두보는 등에 식은땀을 흠뻑 흘리고 온파는 어떠케 식겁을 햇든지 그만 코에서 피가 터지고 일남이는 영문도 몰으고 그저 에비의 고함소리에만 놀래서 불에 데인드시 울어댓다。

두보는 어미등에서 우는 일남이를 도로 바다서 제품에안고 자기의 양복저고리를 벗어가지고 어린것의 머리우까지폭―둘러싸고는『오―냐、오―냐』하고 달래엿다。

온파가 정신을 가다듬는것을 보아서 그들은 다시 그곳을떠낫스나 볼잇는 도야지떼이 보일때마다 몃번이라도『개꿀』이 얼마나 남엇느냐고 물엇다。

그리구로 그의『개꿀』이란 두여에들어갓것은 아마 밤도 열시가훨신 지낫슬때엿슬것이다。

개꿀이란 두여에는 몃집 업섯스나 집군의 말맛다나 파연 들판이 제법 질편하고 군데군데 산기슭에도 인가가 잇는것은 히미한 동불들을 보아도 가히 짐작할수가 잇슬뻔더러 그들이 처음 찻아주막거리도 비록 핍시로된 집들이 만헛스나 여기저기서 장고소리가 들리는것이 꽤 어울리는 모양이엿다。

두보는 제일 좋응한 집을 찻는다고 차젓다。그러나 무깨방 밀창을 반만큼열고서 해빈들한 얼굴만 내놋는안주인의 엇개넘으로 흘끔흘끔 이쪽――이라기보다도 뎟이 말하면 온파의 물끌을 흘터보는만무바패의 엇된 눈길을 눈치채인 두보는 불현듯이 속이 뭉클햇던지라 다짜고짜로김군――만식의 숙소가어데냐고부터 물엇다。

『김만식――?』

하면서도 안주인이 얼른 알아채질 못하기에 두보는 다시

『녜、가나꼬상 말슴이오』

『청수서 온 김갑쟁말이오 얏가도 우리집에서 놀다 가섯는데……저― 바로 이동내에 게서요』

가나꼬상이란 바람에 붉숙붉숙 멈살스럽게 처들엇든 대구리들이 어느새 저다 쑥쑥 들어가버렷다。

두보일행은 그집에서 머물기로 작정하엿다。

주인마누라는 편히 미안스런게 무슨귀한 손님이나 맛난듯이 술먹친구들을제대로 내버려두고 나와서 그들을 어떤방으로 인도하든디 불이나케 하인을 불러서 방에 불을 더 때게하고 다 한참 친절하게 서둘다가는 손소 비질을 한다 걸네질을한 겨우 저녁상을 보러나갓다。

『가나꼬상이라구? 흥 그것도 무방할테지……』

두보는 이러케 중얼거리면서 모자를 버서걸엇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두보는 다소 망서리다가 그래도 만식동무에게 명함을 적어보냇다。

이윽고 만식이가 차자왓다。

아수영 재집처럼 만만하게 대고선、두보가 방문을 열기가 비문을 열어젓들이며『박군!』하고 뛰여들더니 무더지게 손내밀게『아―이거 어쩐일이냐。』새를 내뱃으면서 그덥석 기달이나 하고오다말이지요!』하고서 도가 면도자국가 반듯한 얼굴이 개자하기는 예전과 다름이 업섯스나 실상은 막걸리살인지는 모르되 몸집이 좀 뚱뚱해지고 나이에 맛잔케 제법 코밋수염을 길른것이 얼마쯤 감돈틀거지 갓지 하엿다。

만식이는 두보를 대하야서이런얘기 저런얘길 호자서만 한참 와달바달 해대드니 그제야 문득 생각이 난듯이 아랫목에 옹크리고 안즌 온파에게도 비로소 인사를대겻다。

『전 박군의 동무입니다。』하고 두보가 해야될 소개를 저가속―마치고는、『참、이런놈 따러다니느라고 수고하십니다、허허!』

그리곤 두보를 보고、

『오래간 만이니 한잔허세』

『오늘은 곤해서 안되겟네。이담에 하지』

두보가 구지 사양해도

『괜찬허。몸이 곤할수록 한잔해야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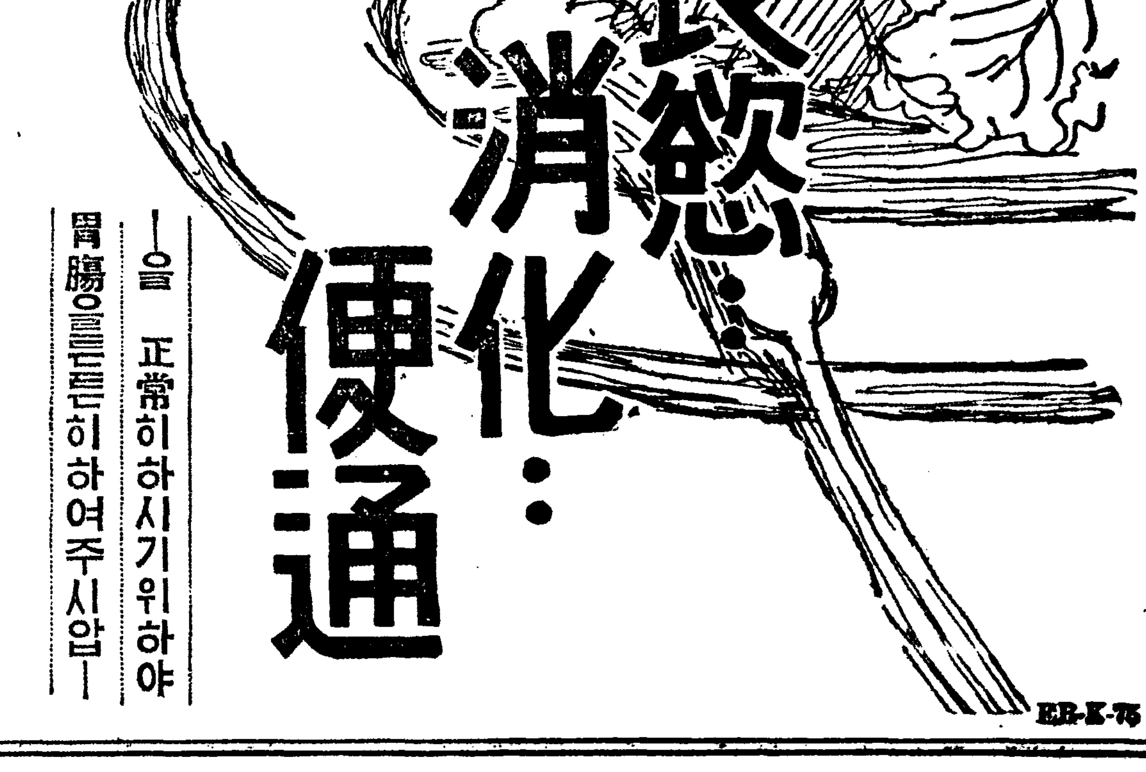
『아니』

『아―니가 뭐야 이사람아。그런 사양을랑 말고 어서 저 밧으로 가세』

그는 옥여으로 두보를 안방으로 끌고갓다。

온파는 겨우 무거운 집을 버서버린듯 고단한 다리를 마음껏 죽―내뻗고서 발목부터 허벅살찜까지를 몃번이나 볼끈볼끈쥐어올렷다。

그리곤 짜정 안방 얘기가 궁금해서 문에다 귀를 잠간 기울엿스나 퍼붓는 잡에 정신이 연방 흐리멍덩해저서 옐든긔귀 영 놀기가 밧버다。



—을 正常히하시기위하야 胃腸을튼튼히하여주시압—

사람의게 무엇이 제일重要하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胃腸이튼튼해야합니다

즉 胃腸의組織에고장이생기면 구미가못지안어서 음식을 잘자시지못하게됩니다

더구나 消化가 좋지못하게되야 먹은飮食物이 충분이 榮養化 血液化되지않게될뿐만아니라 消化가되지않고남은殘滓物은 腸內에남어서 排泄되지않고 그것에서 毒素가발생되야서 血液에移行되야 배속을 거북하게하고 늘헛배가불느게하고 머리가 무거우며 기분이납부고 頭痛이나며 기력까지없어지게됩니다

그러므로 虛弱하신분은 물론이요 健康하신분도 무엇보다도먼저 胃腸을 튼튼히하여주시사 食慾과消化 便通을 순조로히 가지시는것이 가장 긴요한조건이오니 이렇게 되시려면 반드시 酵母劑「에비오스錠」을 복용하시는것이 무엇보다도 제일의건강법입니다

에비오스錠은 自然物中 비타민B複合體가 가장 많이含有되어잇는 麥酒酵母의製劑로써 本劑를常用하시면 胃腸이 根本的으로 튼튼하게되고 입맛이돗으며 먹은것이 모도 살과피로되며 便通이 自然히 나오게되야 늘 기분좋은날을 보내시게 만들어주오니 꼭服用하여주십시요

어느家庭에서나「에비오스錠」을 한병식 常備하여두시사 家族이 모다服用하여주시면 늘 건강히 지내실수잇읍니다

酵母劑 에비오스錠

三○○錠…一圓六十錢
一○○○錠…四圓八十錢
全道藥房에잇읍니다

馬越藥學博士創製
橋谷農學博士監製

エビス・アサヒ・サクラ・ユニオン麥酒釀造元 大日本麥酒株式會社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丁目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ER-K-75

事變下의 우리小工業 ③

小口顧客關係로 家庭工業이오히려有利하다 舊生産樣式의製油業

家庭工業은 一家가 團欒하야 (一室)에서 家族들이從事하며 住하는家屋이나 或은 其隣接한 적은地域에서 · 行하는關係上 通行人이만흔 大路邊이나 工場地帶를 必要로하지안는다 그래서 大槪 家庭工業程度의 職場은 比較的 邊鄙한곳에 散在해잇는것이 만흔것갓다

新設公園을지나서 仁旺山을向해가노라면 草家들이 櫛比해잇는데 어데선지 모르게 喫驚을건드리는 그리나쁘지안흔 냄새가 날려온다

그냄새가 나는곳으로 이끌려저끌려 차저드니 鮮一製油所라는 조고만 기름에저른 집이 부러잇다 바거서서 기웃거리며 안을드려다보니 참기름짜는것이 보힌다

그래서를 드러서서 主人을차저더니 마츰外出하고 업다하기에오돗을 말햇더니 친수업을길게는 老人이 親切하게 說明하여준다

이곳은 ■■를 原料로한 ■기름과 참깨를 原料로한 참기름을짠다고 하는데 참기름의原料인참깨는 其大部分을 滿洲나 揚子江 沿岸에서 産出되는것을 支那로부터 輸入해왓는데 支那에서 輸入해오든것이 支那事變이勃發하자 곳杜絶되여 거이滿洲에서만 小量으로 輸入해오는터인데 百十五斤에 十圓五十錢하든것이 지금은 産地의 品不足으로 이러라할數量이 드리오지못하기 때문에 朝鮮內各地에서 少量式買入하는情勢이며 ■깨는 烏山、平澤、水原等地에서 七斗五升든一石을 十五圓에 買入한다고한다 참기름이나 ■기름이나 ■■工程은 同一한바原料를 큰가마에너코 복가서 망으로갈아가지고 ■■에너허서壓搾器로 壓搾하면 기름이나온다 이러한 工程으로 一日에 從業員二人이 壓搾器六臺를 가지고 石油箱으로五箇가량 搾油하는데 原料는 五斗가든다고한다 이러케 짠참기름은 一箇에二十圓을 ■기름은 九圓가량하는데 참기름은 行商하는婦人들이 直接와서 사가지고 散賣하는程度로 別로 外交員을 雇用하거나 地方販賣가튼것은 업지 市內供給으로滿足하고잇다한다 勿論大規模生産도 업지안흐나 需要는 그리活潑한것이 못되는데 比較的高價의 生産費를 드려서 大量으로 生産한다 하드래도 廚房에다壓搾器한대만 準備해노코 한통이나면 한통을 夫婦가등에지거나 머리에이고 家家戶戶를 차저다니면서 파는사람들을 對抗할수업는 形便이라한다 그러므로제아모리 큰工場에다가 家庭販賣■■■해노코 大量生産을 한다드래도 內容으로는 이가튼 家庭工業生産보다 ■■을 내지못할것이아니라 ■■들는지도 수업다는것이다

그리고 참기름은 市內에서도 使用되나 平壤、大邱、全州等地로 賣出하는데 主로 ■■■■만통때와 장관저를하는데에 使用된다 地方注文은 반듯이 現金取引만하는데 ■賣은 製油所에서 ■■한다고한다 그리고 ■기름이나 참기름이나를 勿論하고 一年을通하야 봄과가을이需要가 旺盛하다한다

그리고 기름을 짜게까지는油粕이라고해서 林檎이나 煙草에 가장 조혼肥料로 滿洲■■城까지도 輸出되고잇다한다 (■■은 玉炳道氏가經營하는製油所內의 搾油機)

【K記者訪問記】

正租清算上場이 正租檢査最終目的

清算賣繫는農、商의苦悶解決

前穀檢所長 石塚氏 談

正租淸算上場이 時期尙早論으로 停滯하야 조곰도 進展치안코도一方內地市場에서는 朝鮮米格下가 云謂되여 朝鮮米의飛躍的發展이 頓挫되게된 狀態에잇는데 이에關하야 前穀物檢査所長인 石塚米食社長은 如左하게 말한다

正租檢査의 最終目的은 淸算上場에 依하야 世人의 公平한 批判下에 두게함에잇다 卽品質의 改良과 同時에取引의 圓滑敏活化를 圖謀하지안흐면 아니된다 淸算上場에 依하야 農民이 思惑의射倖心을 붓돗는다고하는側도잇스나 農民이 思惑으로이를 利用하는일은絶對로업슬것이다 正租의 取引은精米業의 發達에 依하야原料로 必然的으로 大量의 正租가 한거번에 取引되고잇다 이를 中間的으로 放置하여두는데에 여러가지 弊害가 發生한다 檢査實施以來 弊害가 發生한다 檢査實施以來 正租의品位는 向上되고 規格도大槪統一되여왓다 이를 더욱合理的으로 發展시킴은 外部的施設에 依할박게업다 正租淸算上場은 取引所及 商工當局이 이를 絶對的으로 希望하고잇는模樣이다 指導奬勵當局으로서 조곰도 逡巡할必要가 업슬것이다 速히 上場하야 正租取引의 便을 圖함이조타、取引의 便利한點에 對하여는 이미 陳腐한것이거니와 第一먼저 正租貯藏奬勵를根本方針으로하면서 淸算取引은玄米를 主軸로하는 矛盾이是正되며 또大量取引에依한 賣繫의 便益이잇다 正租가 淸算에 賣繫되지못한다는것은 現在의 農、商兩者의 가장 큰苦悶이다

最近 正租의 檢査徹底에反比例하야 正租의 商品價値를益益狹少케하려는 傾向이잇다 正租의 內地移出을 禁止할意向이잇는 模樣이나 眞實한取引圓滑化를 爲하야서는 일부러 小心할 必要는업다 內地進出도조타 그러나 다만輸送에 當하야 容積이 倍나크므로 不利하지만 趣志에잇서서는 크게 進出할 必要가잇다

朝鮮米의 格下를 念慮하고엇스나 이는 單純한 淸算報이다 淸算受渡에 提供되는朝鮮米는 僅少한 數量이오 實際의 一般取引은 問題업다。 淸算의 格付는 勿論 一般朝鮮米의 聲價에 影響되는바만흔나 實質的價値는 반듯이 그取引에 表現되는 表面的格付如何는 그리 問題할것이아니다 그러나 이는 朝鮮側에對하야는 品種的改良運動의 조흔刺戟劑로서 잘參考的으로考究하지안흐면 아니될것이나格下問題를 朝鮮米의 大問題로서 떠들必要는 업다 오히려 冷靜히 將來의 對策을考究할것이다

購買券制度 ❶

獨逸蘇聯에서 主로食糧品에採用

購買券制度라고하면 곳蘇聯과 獨逸의購買券制度를 聯想하는데 戰時體制는 드디어日本에도購買券制度를採用할수밧게업게되엿다

獨逸의制度

世界大戰當時 獨逸은 開戰後五日의一九一四年八月四日에 最高價格에關한 法律을 公布하야 穀物其他에對해서 最高價格을決定하엿는데 穀物의生産者及商人은 政府決定의最高價格은 過히低價이여서 다시引上하라는 豫測下에 其所有品을 市場에販賣치안키때문에 市場在荷는 拂底하야 小賣市場의販賣을 惹起하야 最高價格制度는 破綻에瀕하엿다 그래서 政府는 一九一五年一月廿五日 穀類用穀物及穀粉의取引을 規律하는 命令을發하야 在庫高을 調査하야 差押事實하엿고 帝國分配所를 設置하고 戰時穀物會社의助力에依하야 當政穀時까지 全國에亘하야 配給統制를實施하얏다 帝國分配所는 먼저各町村團體의穀物分配額을 그供給할바를 住民一人에對하야 平均一日當廿五瓦으로하고 이에 馬鈴薯粉을 加하야 一週間二瓩의 比例로써 配給하기로決定하고 各町村團體에잇서서는 其住民에 穀類及麵類粉을 配布하는方法으로써 穀類購買券을 使用한것이다 이購買券制度는 後에肉類에까지波及하얏다

蘇聯의制度

蘇聯의食糧品購買券制度는 너무나有名하다 一九二八年第一次五個年計畫으로드러가자 國家의强化 重要工業化에生産力을 集中하야 輕工業特히 生活必需品의生産을 輕視하엿슴으로 物資의缺乏은 其極에達하야 이輕工業에從事하는 勞働者의 保護給養이重大問題가되여 政府는 生活必需品을 公給하기로하야 工場或은 職業組合을通해서 各個人에對하야 購買券을配給하고各個人은 이購買券을가지고 商品을購買하엿다 食糧配給所의 窓口로부터 鰊罐長蛇의列을지은失業者群이 한손에는 購買券、한손에는바게쓰를들고 모혀드리買物行列을짓고잇는風景은 蘇聯의 一名物이다

我國의購買券制現況

我國에잇서서의 購買券制度는 蘇聯과同樣의必要에依하여서가아니고 其品種도 獨逸、蘇聯과가티 食料品이아니다

我國에서 購買券制를 採用하고잇는 品種及採用年月日은아래와갓다

生고무 (昭和十二年十二月一日)
綿 絲 (昭和十三年三月一日)
石 油 (昭和十三年五月一日)
鐵 鋼 (昭和十三年五月十五日以降)

右中生고무와鐵鋼은 業者의自治的措置에 依하는것이다業者의自主的措置라고하더래도 商工當局이 統制에第一線에서지 안흐면으로 裏面에잇서서는 商工者이立案하고 其實行如何를 嚴重히監視하고잇다 이에對하야 綿絲石油는 政府當局의손에 依하야實行하고잇다 다음에此等購買券制에對하야 檢討한다

(生고무) 昭和十二年十一月頃은 原料고무 飢饉時代로生고무의 國內市勢는 輸入採算點을 大割이나上廻하얏다 이가티되면 伸縮自在하여야할고무의需給도 如斯한價格騰貴로 因하야半身不隨가되어 中小工業家는原料手當難때문에 不得已操業을休止하게되엿다 또生고무는軍需品으로서重要한 地位를占하고잇스므로 드디어我國最初의購買券制度와 最高價格制를採用하게되엿다 配給票를發行하는者는 日本고무工業組合聯合會와 日本被服電線工業組合聯合會이다 軍需品用은 軍需要에充分히 販賣수잇도록配當하야 輸出向用은前年同期의 輸出實績을 參酌하야配當한다 그리고 輸出振興을爲하야『링크』制를 採用하고 輸出向고무에는 一封度에十五錢의保證金을徵收하고 追加配當도行한다

(綿絲) 棉花는年八億圓이나輸入되여 輸入의大宗이다 事變發生以來 最初로輸入制限이되어從來의 八億圓輸入은五億圓程度로削減되게되엿다 輸入은制限되더래도 世界에서占하는 日本棉業의覇權 (輸出廿七億平方碼의記錄)은喪失하고십지안타 오히려것을確保치안흐면아니된다 어에잇서서 內地消費를節約키爲하야 스、파强制混用으로되엿다 그러케되면 市價는綿價騰貴하야 最高標準價格은 全然維持되지안케되여暗取引이行하엿스므로購買券制度가實施하게되엿다 먼저綿絲配給數量의配當을 決定케하야配當票를 交付해서 이에依하지안흐면綿絲의賣買가 不可能하게되엿다 卽綿과스·파와의 混紡絲도包含하야 綿絲를原料로하는 材料로하는製品製造又는 加工을業으로하는者는 商工大臣의 指定한團體가 配當한數量을 超過하야 綿絲를原料로使用할수는업다 地方長官又는 十八의指定團體는 綿絲를使用한製品에包含되는 綿絲의量을檢査하며 取引事實의報告를 聽取하야 이것을檢査하고配當票를 提出케하야 이것과對照해서 配當强制의目的대로 綿絲의配給統制가 實行되여잇는지 어떤지를檢査하는權限을法律에依하야賦與하고잇다 加工業者에의配當量은 輸出向은一定量의『링크』制를採用하야 無制限으로供給하나 國內向은事變前에對하야 混紡絲가 四割內外許可用綿絲가三割內外로 削減되엿다

(石油) 『石油一滴은 血一滴에 匹敵한다』고까지하야 國家의 血液인石油를 軍需用으로 確保키爲하야 드디어石油에도購買制를 採用하얏다 그리고이 購買券制에依한 消費節約의 目標는 揮發油一噸五分 重油二割이라한다 揮發油或은 重油의販賣業者又는 石油精製業者는 購買券과 引換치안흐면 揮發油又는重油를 賣渡할수가업다 그러나揮發油一『릿틀』以下重油五『릿틀』以下를購入하려하는境遇에는 購買券을必要치안는다 이購買券은 商工大臣이指定한限度內에서 地方長官이 發行한다 購買券은揮發油에對하야서는一『가론』券其他合計八種으로하고 重油에對하야서는十八『릿틀』(一罐)券其他合計六種으로 하고 各種에對하야 赤、靑의區別을設하얏다 赤色券은 船舶用의揮發油又는重油를買入하려는者 靑色券은 船舶以外에使用하는 揮發油又는 重油를 買入하려하는者에게 이것을交付한다

(鐵鋼) 『廿世紀는 鐵의世紀』라고할만한鐵은 生活의모든部門에亘하고잇다 特히戰爭은鐵의投合이라고 하리만치 戰爭과鐵과는不可分이다 그래서事變以來 鐵鋼工作物築造許可規則을公布하야 大廈高樓의 建築을制限하고 鑛物의製造制限으로 火器의 製造까지 禁止하엿스나 이래도 鐵의需給의圓滑을 期할수업스므로 鐵鋼統制協議會가 生하엿다 協議會의目的은 原料生産數量 需要數量、鐵鋼의生産數量、材料의所要數量、輸出入數量 消費部門品의 鐵鋼消費節約基準等의 大要를決定하고 또一定期間마다 鐵鋼配給의具體的計畫을 作成하야 各自主的統制機關으로하여금 其計畫을 따라서 鐵鋼의配給에 當케하려고하는것이다 配給統制機關으로서는 需要者側의 機關은 各消費部門別의 協議會及工業組合이 이에當하고 供給者側의 機關은 全國鋼材商業組合聯合會(鋼材共販組合聯合會의 指定商社五個餘所로組織함)와 特約店商業組合聯合會(全國二千의 特約店으로되는 團體로 이것은 前記指定商社에從屬함)이다 그리고 購買券制는 各消費部門別로 四月一日以降의在荷整理가된 部門으로부터 五月十五日以降 實施하게되엿다 購買券制는 需要者가 鋼材共販傘下의 指定販賣人指定商社或은特約店으로부터 鋼材의 供給을바들때에 適用하는것이다

但 (一)軍當局과公共團體가直接鋼材를購入하는境遇와 (二)軍需品工場이 軍이指定하는軍需品에使用하는鋼材를 購入하는境遇는 購買券을必要로 하지안는다 (完)

全南棉作 今秋增收를豫期

【木浦】今年度棉作은 非常時의國策인故로 作付反別도 一般의로 擴張할뿐아니라 昨年度全南實棉共同販賣高가 四千萬斤을突破하엿지마는 今年度棉花生産은新記錄을 짓도록 當局의 指導員이나 一般生産者가 모도協心 … 局者의 말에依하면 今年棉作은 大體順調로 播種이다되여 發芽만 기다리고잇는中 昨今의慈雨로 늣게播種된곳도 全部發芽하엿슬터이요 뭇지방면은 大槪가 보기조케 發芽成長 할뿐아니라 海岸地帶와 島嶼方面과가튼 播種이늣게된곳도 이미八九割은發芽하엿스나 今番降雨로 全部發芽成長하엿는대 今後로 順調風雨만하면 今秋收穫은 豫期를突破하리라고한다

甕津農會棉作奬勵

【甕津】黃海道甕津郡農會에서는 …

麥增收策으로 適期刈取旬間決定

全南道農務課에서

【全北支社發】全北道農務課에서는 臨迫한麥收穫期에 對하야今年度麥適期刈取를 決定하고增收를 計畫하고잇는데 前年에比하야 耕作面積은 十一萬町步나擴張되엿슴에도 不拘하고 氣候關係로인하야 收穫은前年度와大差업시 約百萬石假量이라는豫想을하고잇스며 더구나 適期入鎌을喪失하게되면大端減收하게된다하여 職員을總動員하야 適期刈取를 指導督勵하기로하고 다음과가티 日程을決定하얏다고한다

▲平野部 六月五日―同十四日
▲山間部 六月七日―同十六日

中空鋼과水銀 統制機構決定

産金增産의 急務에 對應키爲하야 中空鋼과 水銀에 就하야서는 旣報와가티 特히鑛山課가參與하야 一般物價配給과 分離하야 統制키로되엇는데 如左한機構로六月부터實行에入키로되엇다

中空鋼＝年額二百萬圓의需要가잇는데三菱商事를中心으로朝鮮銃砲火藥、弘中商工、高田商店에서 輸入者組合을 結成하고需要를 鑛山用과 土木用에 分離하야 總督府에서 傳票를發行하고 配給에入할것으로 價格은現在의 一千二百圓唱이 相當히値下되리라보인다

水銀＝三菱商事와 朝鮮銃砲火藥을 輸入者로하고 銃砲火藥과 阿部藥房을 下請으로써同樣、傳票制를 實行할터인데 이것도 相當히 現在市價보다引下하야合理的配給을計畫키로되엿다

高敞特産苧麻

年産額十五萬餘圓을突破 內地에까지進出

【高敞】全北高敞의特産物인苧布 白紙油紙改良織物 麻布等으로一年産額이約十五萬圓이라하며此等은全鮮에서 多量으로使用하고잇는데 第一일흠이놉흔 忠淸道韓山苧이다 其原料는 高敞特産品의하나인 高敞苧麻를 買入加工하여오는것인데 이것이 有名한 韓山苧布이다 그럼으로 當地郡廳과 道廳에서 韓山에서技術者를招聘하야 十餘年前부터 猛烈히 韓山苧布와 가튼品質을만들고저 不斷한努力을다하야 婦女子에게講習會를열엇다 그리고또 장판紙等도 京城等地에서 만흔數量의 注文이잇서 當地産業組合에聯絡하야 販賣하는商人도 만타한다 그바게今般 日本紡織會社에서는 朝鮮內에서 使用하는 苧麻二千五百貫을 注文하여왓다한다

戰時體制下에 銃後의 國民으로서 時局認識에 强化를 圖謀하는同時에 軍需品原料需給의 萬全을 期키爲하야 馬山面의一百七十五反步를 筆頭로 萱下十一個面에亘하야 棉花栽培를 積極的으로 奬勵할方針을 樹立實施한다고한다

錦山簾生産高 三萬枚突破

【全北支社發】全北錦山郡南一面砂防工事指導部落에서는 現場工事以外에 農村副業으로 人蔘에덥는발(簾) 製造를 指導奬勵한結果 只今까지 販賣收益하게된生産枚數三萬枚 生産高一萬圓以上에達하게되여 農村經濟에 大端한補助를주엇다고한다

朝鮮馬産에對한 將來와發展性

朝鮮軍獸醫部長 談

朝鮮의 馬産을 論할때『朝鮮의馬産은 從來歷史的環境과그經濟的事情으로부터困難하다』는것은자조듯는말이다 또이미滿蒙方面이 日本의勢力範圍에드러간今日朝鮮과가튼데에서 只今새삼스리이 馬産을할 必要가업다 朝鮮에는 牛라는 畜産의大宗이잇다 그增殖이半島의 使命이다 라고도하는데 이는一面의理由는잇다 그러나 馬産이 朝鮮에서 必要한所以는 單只朝鮮의 繁榮이라던가그經濟的發展을 爲하여서만 잇는것이아니라 他에 必要한國防的觀點으로부터論議될것이다。

戰爭과 馬의 關係는 이미論述되엿거니와 今次事變의經驗에徵하야 日露戰爭以後實施하여온다 日本馬政의 新基礎下에 一層改良增殖할 必要가잇서 이때문에 內地에서는 生産奬勵에도는 그鍛鍊에 熱中하고잇는 現狀이다 産業經濟國防上重要한位置를 占한 半島에서도 이를對岸의火災視하여서야조흘것이냐? 朝鮮의 馬産計畫은 始政以來屢屢論議되어 幾多한 曲折을 經하야 겨우確立케되여 昨年부터着着 其步를 내여드디게되엿는데 只今부터冒頭에서 述한바와如히 悲觀論이 流布되고 잇슴은 寒心할일이다

大體 朝鮮은 比較的 草原野가만코 氣候도 또한 寒暑가適合하고 또 乾燥함으로 自然的環境은 畜産에 適合하다할것이다 그우에 農民은 一般으로 養畜의技術에 익어 今日 보는바와如한 優秀한 牛種을 만드러냇다 此等 各種條件은 育馬에도 妥當하야 畜牛의 觀念으로 馬匹에 應用 又는轉向하면 可하다고信한다 濟州島馬産의 歷史를보아도 또는 現在 어느程度 成功을 엇고잇다 陸軍貸付種馬와 咸北地方蕃殖馬의 成績으로 보아도 그將來를 示唆함이 잇다고 생각하므로 施設指導가 조흐면 반드시 此事業도 相當한 成果를어들것이다 歷史的過程이나 經濟的事情으로부터서의 悲觀論은必要란事情下에는 解消할것으로凡有障碍는 이를 擊止打破하야갈覺悟를 갓는다면 그前途는洋洋한바잇다고 信한다

그러나 生産하는 馬匹을 民間에 普及保有시킴에는 民力民情을 考慮하야 適切한施設下에 指導하고 保護奬勵를 講究할必要가잇는同時에 一般有識階級의 馬事思想을 喚起하야 馬産에關한認識을 充分케하야 此事業에對한 支持援助를 期하지안흐면 아니된다 이를爲하야 畜馬의改良、乘馬會의普及等 幾多研究치안흐면 아니될問題가잇다 또馬匹의 經濟的價値昂揚을 圖하야 그飼育을 容易케하기爲하야 利用法의研究及 그普及徹底를 期하지안흐면 아니된다고 思하므로 ■等關係者는勿論 一般으로서도 더욱一層努力하여야할것이다

이는要컨대 朝鮮의 馬産事業은 決코容易하다고 말할수업다 그러나 때에는 浮沈이잇다하더라도 古來로부터 馬를生産하고 使役하얏스며 近來는 微弱하지만 鮮馬에 內地馬增加의 傾向을呈하는 半島의現況에 徵하야도 決코將來性을 否定할것이아니다 하물며 廣袤一萬四千餘方里에亘한 地積에서 僅少한 增産을 試하는것이오 또帝國四圍의 情勢上 急速한資源擴充에 順應시키지안흐면 아니될時代이므로 官民이함께 認識을一新하야 國防上、産業上의 必要性을 確實히把握하야 極力그振興에努力하면 그發展이 期待된다고 信한다 그러나그手段方法如何는難易의分岐가되는바임으로 全智全能을짜서 各方面으로부터 檢討를加하야 施設에 指導奬勵에遺憾업기를期하는同時에 民間飼育者의 發奮을 希望하고 衆하야 一般의 協力을 熟望하는바이다

咸北特産과그由來 (其二)

들 죽

白頭山麓은 天然的植物園으로 有名하거니와 그中高山植物 石南科等屬(들죽)을 原料로하야 加工한 商品에 『들죽』(ツルチユク)이잇다

『들죽』은 小灌木으로 果實은 葡萄와비슷한『루비』色에 佳味를 띄운滋養分만흔것인데 每年八、九月頃에 採取한다 商品으로 改裝되기는 最近일이나『들죽』에 對한由來는 매우悠久하고特히 王室과의 因緣이 매우기픈것으로 古今을 通하야 自古로 이果實을 먹으면 精力이 旺盛하고不老長生한다게밋게되다한다 百數十年前에産地인 甲山郡下의一老人이 王室에 至極히 忠誠한 남어지이靈果를 國王께밧처 聖壽無疆을 祈願코저 二千餘里의 山野를 넘어 宮城에이르러 그뜻을 奏上하얏든바 國王께서는老人의 忠誠을 嘉賞하시고 老人의 所願인 官職을 下賜하신일이잇섯다하며 또爾後로는 地方官吏가 上京할때면 반드시 『들죽』을 國王께밧첫다한다

『들죽』은咸北과咸南의 接境卽白頭山기슭一帶의 高地帶에 分布하얏는데 그面積이五千餘町步에 達하고 每年五千餘石의 果實을 收穫할수잇다

生果의成分은〃비타민〃葡萄糖、植物性酸等의 天然的滋養素가 豐富하므로 이를加工하면 補强劑로 또는高級淸凉飮料水로 貴重한商品이된다 現在이것을 商品으로生産하는것은 咸北羅南에서産出하는 들쭉『ツルチユク』로 本社主催의 特産品展覽會에서 人氣를博한商品인데 其外에는 天惠의藥果를 利用加工하는곳이업다 (吳快一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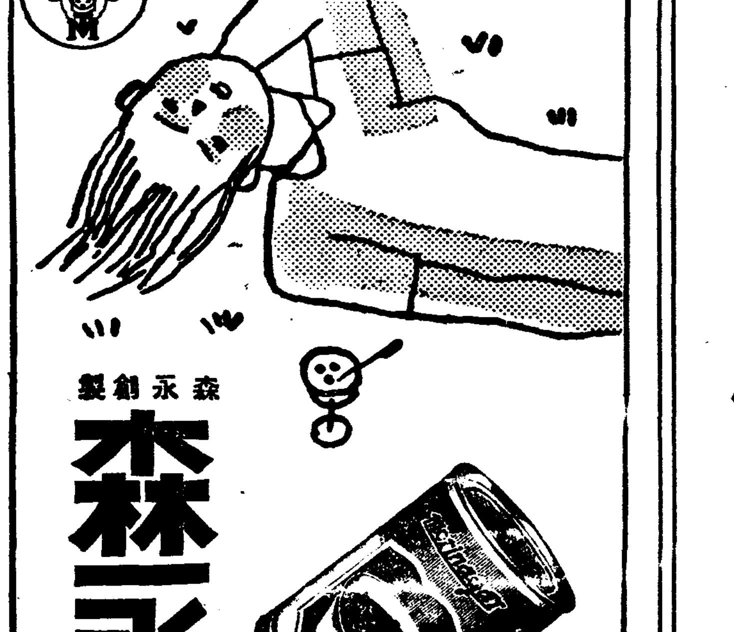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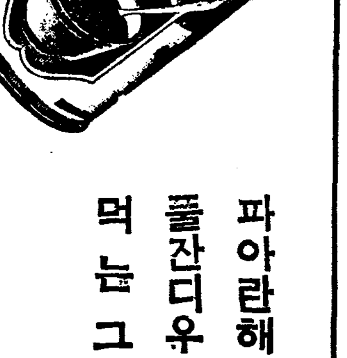
鑛業協議會 各地에創立總會

淸州 忠北의 資源開發의萬全과 鑛業家의 連絡協調를 圖謀하기爲한 忠北鑛業協會는 지난二十九日午後二時부터 道廳會議室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게되엿는대 同會의 役員은 다음과갓다

會長 小幡公 副會長 堀內亮 助 監事 宍甘平藏 金晩基 評議員 石飛範衛 岡濱太郎 村井萬里 山田熊吉 益田英男 松尾虎男 松島吉次郎 安士一 有馬昌吉 濟州省三

全北 鐵鋼配給統制를 目的하는 全北地方鑛業協議會 創立總會는 本報에 이미報導한바와가티 五月三十日 午後一時 道內鑛業者 百餘名이 道廳會議室에 會集하야 開催하엿다는바當日協議事項은 다음과갓다고한다

▲開會
▲團體內容說明
▲地方鑛業協議會創立에關한것
▲新法令施行方針에關한것
▲勞働者狀況에關한것
▲事故防止에關한것

담배를피우시면
스모카를쓰라

스모카는 主로喫煙家의 齒磨입니다 故로 스모카를 쓰시면 齒齦의검은 진이곳닥가집니다 그러고喫煙家가안일지라도 누구의 齒齦나 純白한빗을 나게합니다 스모카는 過度한喫煙으로 생기는 입안 헤진데! 냄새! 食欲의 不進! 그것을 防止해서 口腔을恒常正當한 狀態로둡니다 스모카의 粉末에는 適當한濕潤이 含有해잇습니다 그것은 헤푸게散亂하는것을 防止하기 爲한것입니다 一人一罐의 使用量은 約一個月强 그以上의 消費는濫費입니다

藥店·雜貨店·化粧品店·煙草店에잇슴 定價 十五錢

昭和의常識
時計는使用치안흘때라도 트러두는것이機械를爲하야조타

무엇을먹든지맛이업슬때
아주맛이잇게하는……
仁丹

大邱府京町
本報慶北支社
電話 一四四三番

六月一日부터同四日間 每日晝夜二回晝一時夜七時三十分 開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松竹大船特作品 現代名篇 母の夢 監督 佐佐木康 主演 佐野周二 桑野通子 飯田蝶子
◇外社特作全發聲日本版 ハリウツド大通り 監督 로-바트로루-리氏 主演 존·하리데-이 마사한드로바-트、가밍크쓰
FOX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템플의福의神 監督 아푸잉크 가밍크스 主演 샤-리템플孃 助演 마이클와엘리 아리스헤어 로리와트스데와트 쟉크헤-이
桃花劇場 電光 一三三番

六月一日부터同四日間 (特別名畫大公開豪華番組) 土日祭日晝夜三回正午―六時 普通映夜間七時卅分 大衆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今週에限하야는特別興行
◇大每事變ニユ―쓰
◇大日本總天然色映畵社超特作品 現代名篇 唄へ青空 監督 近藤伊與吉氏 主演 駒井哲 新島龍二 花野岡子 金澤千恵子 日本映畵의初有로된總天然色映畵
◇三映社特作全發聲日本版 !見失지마시라 戰爭活劇 肉彈山岳戰 監督主演 쿠이스드렝커氏
◇半島映畵社本年度超特作全發聲日本版·朝鮮語全發聲現代名篇 漢江 監督 方漢駿氏 主演 李錦龍 金一海 尹逢春 具素燕 玄舜英
京城新堂町 電(本)五六七七番 新富座

南朝鮮各地代表들 五日、木浦에서會合

潭陽、南原、大邱、浦項을連結 橫斷鐵道敷設促進運動猛烈

【全南支社發】어미전부터 관계지방에서 운동하야오던 전남담양(全南潭陽)으로부터 전북남원(全北南原)을경유하야 경북대구(慶北大邱)포항(慶北浦項)등에 연락하는 남조선횡단철도에대하야 제일차으로 담양금지(潭陽—金池)간삼십육키로//철도만을 금년중에 개통하도록 공사를착수하려다가 지나사변으로 인하야 일시중지되엿는데 연선각지방에서는 또다시 맹렬히 동철도촉진운동을 하게되야 오는오일에 목포(木浦)에서 각지대표자가모여 전국운동을할터이라는바 당일출석할 각지대표는 다음과갓다

▲光州代表 難波府尹 商工會頭 商工理事外二名 ▲大邱代表 商工會議所副會頭伊藤氏 同商工會議所吉田理事外一名 ▲南原代表 邑長金斗氏外二名 ▲浦項代表 邑長曾田氏 商工會長 大上氏外二名

鄭才泓氏特志 五十戶에施米

【盈德】경북영덕군내 남산동(南山洞)에서 파수원(果樹園)을 경영하는 정재홍(鄭才泓)씨는 수십년관계(官界)에잇서 직무에근실하엿스며 대경팔년이래 향화네(向學寮)이방찬합매 영덕청년회장(盈德靑年會會長)·院長)과 일성야학원(一成夜學院) 간부로잇서 불면불휴의 성심으로 영재(英材)를 배양하야 사회게 공헌이만헛섯는바 씨는금차산동일대에 거주하는 극빈자를 은 맥령(麥嶺)을 압두고 일일여삼식인 이때에 일조라도될까하야 극빈자사십호에 매호에 일원상당표준으로 곡물(穀物)을 시혜하엿다는바 춘궁을당한 이때에 무상의활물이며 아므로 도 본면극빈자 수백여호의호세 대납(戶稅)까지 자원하야 관계 당국과일반인사는 칭송불이한다 고하며 씨는 면의원(面議員)으로써 지방사업과 면정에도 만흔 기대가잇다고한다

다못하야 요지음 경원도지사에게 주민대표들이 인가촉진에대하야 진정을하엿다한다 어제진정서의내용을보다면 구당리에화교설치문제는 다년간의현안으로 유지원으로부터 간이학교 서당 등여러가지방면으로 운동하엿스나 인가가되엿다하고 정월년을고 려오다가 금년계산소학교의 설치로 벌써주민들은 소요거금도 다조달하고 인가를시청하여 어린얼을 지난今에도돌구하고 상금 인가가되지안흠으로 그와가티 지청을한것이라는바 하루바삐 개교를기다리고잇다 원래사월부터 개교된다는말에 금년에 가려주소학교에도 입학치안코거다리든 아동이만흠으로 교육상큰문제이라고한다

淸羅市計畫整 測量大體終了

【淸津】청진과라남의 두도시시가지계획(市街地計畫)의 정구획

大阪東成區東小橋 權花幼稚園閉鎖 十年歷史이로써마금

【大阪】대판부내에 십년이라는 긴역사를가진 시내동성구동소교(東成區東小橋)에잇던 권화유치원(權花幼稚園)은 근일에 원장정일도(鄭一藥)로부터 원아각부형에게 폐원(閉園)의통지를발송하하는동시 동원을폐쇄하엿다는바듯는바에의하면 지난사월중에 모사건의혐의로 동원원장정일도씨와 보모두사람을 부경찰부로특고파내선계에서 검거하는동시가택수색도하엿섯다는데 동원보모두사람은 어롱만에석방되고 정씨만은 어십여일이나 구검되엿다가 석방되야 어가릅페쇄하엿다고한다

實販賣事業利用 十一、興業獎組織 十一、時間嚴守 十三、出資金 十四、定期信用調査後援

四千戶水沒農家 移植方針遂確立?

半은滿洲로其他는黃平道에 平北現地郡守會議에서決定

【新義州】압록강수력발전(水力發電)「댐」설치에 따르는 평북창성등 오군집삼면의주민 사천유백여호 이만오천여명의 이주문제는 수전설치에가장 큰파생적문제로 도당국을비롯하야 회사에서 신중고려중이라함은루차보도한바어니와 지난이십팔삼십량일간 도청에현지군수를 집합하야 이주방법을 신중연구하얏는데 문제가문제이니만큼 아직이에대한대책을 극비에부하고 발표하지안으므로 자세한내용은 알수업스나탐문한바에의하면수몰(水沒)될호수 사천유백호중에서 만주에 그반수 이천여호를 이주시키는동시에 일천호는 평남과 황해도에 일천호는 도내연선인 정주(定州)선천(宣川)박천(博川) 또는 귀성(龜城)등지에 이주시키고 토산백호는 기보한 황해도연백과 용강(龍岡)연전에 남어지 삼백호는 수전(水電)또는 평북철도(平北鐵道)공사에 사용할방침으로 대체결정된 모양이라 되엿는데 회의의벽두에 상공지사는 지구전하에잇서서 치안유지원병제도 시국인식등에 대하야 훈시를 한다음·팔목경찰부장의 연시를 마치고지사주의사항에드러가기로되엿다 회의순서는 다음과갓다

慶北警察署長會議 一日부터三日續開

【慶北支社發】경북경찰서장회의는 일일부터 삼일간 도회의실에서 개최하게되엿는바 첫날으로전일오시반부터 상공지사(上瀧知事)팔목경찰부장(八木警察部長) 경찰부각과장및 각경찰서장이대구신사에 참집하야 황군무운장구를 기도하고 여덜시에 도청압뜰에서 국기게양식을 거행한후에 여덜시반에 회의를 열게

▲第一日知事訓示 部長氏示知事注意事項 ▲第二日 檢事正訓示 管內狀況報告 ▲第三日 意見希望事項協議

葛山小學促進 道知事에陳情

【伊川】강원도이천군방장면구당리에서는 금번갈산공립소학교가 인가가는거지므로 부득이기다리

丹城金組役員總會

【丹城】산청군 단성금조(山淸郡丹城金組)에서는 오월삼십일오전십일시부터 조합사무실에서 역원총회를개최하고 중요사항십사개조를 타합하엿는데 취중저축여행(貯蓄勵行)에대하야 특히주의를 환기한바 어사원번(尹理事尹範洙)씨로부터 장시간에긍하야 총후국민보국저금의 취지선전을 강영하여설하고 오후삼시에페회하엿는데 타합사항은 다음과갓다

一、組合과의業務連絡 二、組合增資計畫 三、相互連帶保證契組織 四、肥料貸付 五、製作獎勵 六、貸付業務 七、延滯貸付金整理 八、貯蓄勵行 九、婦人團體指導助長 十、勝

鐵筋橋梁을破壞 鐵材數百貫을詐賣

鐵材飢饉이나흔犯罪

【新義州】철(鐵)기근이나흔대담한범죄—평남개천군개천면군양리(平南价川郡价川面軍陽里)우피상김달영(金達永)(三〇)은 평북강계군외경동면 진평(江界郡化京面津坪洞)이등도로가 최근폐도되여이에따르는『교량』이 필요치안케될을기회로하야 지난삼월이십칠일 전기교량을 강계군수로부터 삼십원에 불하를바닷다고사칭한후 가르켯사는 김정국(金定國)의네명과가티 교량을파괴하야 『철재』(鐵材)약사백관을 횡령가지서에만 김창길(金昌吉)경령의 철공장에사백원에팔고 다시사월삽팔일부터 어십삼일까지오일간에이르러 김기봉(金基鳳)외네명을 리용하야 전기와 가틈 수단으로 철재백관을 횡령영변(寧邊)읍내 고물상 김병식(金炳植)에게일백십원에 팔어먹으나실어 최근장계군판무에 방법에나와서 팔려다가 그만함흥서원에게 체포된것이데 대규모의 밍서절도범으로는 부내에서고잇다 방금 취조를밧는 중이다

一校一週日程度로 中學生도勞役에

三和川埋築工事場에서人夫노릇 夏休맛는平南道서도

【平南支社發】평안남도 학무과에서는 도내중등학교 직원과생도에대하여 인고단련(忍苦鍛鍊)근로정신의 함양을위하여 여러가지 구체적방책을 연구중이데 그한가지로 위선 금년하기휴가에 지금 버야흐로 인부부족난으로 허덕이고잇는 진남포 삼화천매립공사장(三和川埋立工事場)등 토목사업에 그들선생과생도를 동원하여 각교순번으로대개 일교일주간정도로 공사장부근에 캄프촌을 만들고 거기에서 유하며 공사에 노역종사케하려는것이데 근로정신의 함양노동의체험은 대단히 조흔이나 인부부족난의 공사장에 학생의인부가되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잇지안흘가? 식자는 적지안흔 관심을 가지고잇다 그리고 학무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애국정신을 일층 함양시키기위하여 도내 각촌농학교에 애국소년단을 결성하도록 종빙(慫慂)하엿다한다

待望의淸津水産學校 生徒募集을開始

漁撈製造科各卅名

【淸津】거재어가가는기때문에아직것개교를못하고잇든청진공립수산학교(淸津公立水產學校)는 그동안개교준비일체가 정비되얏스므로근근서현은 오는六월십일경이랑일동안라남 중학교(羅南中學校)에서 모집인원은 어로과(漁撈科)삼십명과 제조파(製造科)삼십명으로 한계류신명의정원인데 입학시험은 교장의입명을밧고 생도모집을 하게되얏다 거행한다

甕津小學校新築 六月下旬着工?

【甕津】옹진심상소학교는 교실이 협착하여 지원아동을 다수 수용치못하고 또는 현재아동도교실이 부족한탓으로 구면사무소 공청을 비러 나누어 교수하고 잇스므로 학교당국자와 아동들에게 곤난은 실로 막심하므로 일반 유지들은 학교 이전신축설이 대두하던중 재작년부터 기부모집에 착수하엿던바 일반유지들이 만여원을 기부하고 또 일본광어보수식회사 옹진광산에서 오만전원을 자진히사하엿스므로 서흥닥(西興畓) 뒤에 학교기지를 매수하고 신축코저하엿스나 일만여원이 부족되여 오늘까지

龍岡殺人事件 怨恨?强盜?

警察은兩方面을追窮

【鎭南浦】지난이십구일오전한시경 평남용강군용월면마동리(龍月面麻洞里)부호 어창훈(魚昌勳)의집에 강도가드러가 동인의손자효로(孝老)를참살하고 현금팔원을강탈도주한살인강도사건에대하여는 방금용강서에서 엄중히 수사중이거니와 도보안과에서도 사건을 매우중대시하고 야상경부를 급행케하여 수사를적려하는일방 엄밀한수사를하고잇다는바 어느단순한 강도사건이아니고 어떠한 원한으로인한 살인이아닌가하는점이 농후하여 그방면으로 수사도진행되고잇다는바 장차사건의 실마리는 어떠케나올런지 매우주목되고잇다

지원서(志願書)는 소지투여 학구당국(學務課)로제지 ... 도학무과에반지(返紙)를 청부하야 문의하면 상세한것을가르켜주기로 되야잇다

精妙한印刷術로 電車票僞造販賣

全家族共謀임이綻露

【平南支社發】평양전차길의정유장마다 허틀한아이 부인들이서서 전차를타려는사람에게 전차표를팔고잇는것은 특이한풍경인데 그표중에는 위조표(僞造票)가 석겨잇섯다는것이 최근서선전기회사(西鮮電氣)에서 경영하는평양전차의 회사로서 사용하는 회수권이 만만보다는 행한수보다 만하보이므로 회사에서엽 서 전차감독 김재찬(金載燦)씨가 대동서(大同署)형사와연락하여 내탐(內探)중 신창리(新倉里)정주상에서 전차표를 파는 호 김대하(金大河)(二〇)의 거동이수상하여 오월삼십일일 저녁때 그를붓들고 주궁히 추궁하엿든바 그는 자기의가족이공모하여 전차표를 위조판매하는사실을 자백하엿스므로 즉시그의집을수색하고 그의형 김대석(金大石)(二七)과 그의어린동생 양(金大洋)(八)까지 온가족을 전부검거하엿는데 그들은 지난이월경부터 인판(印版)에농한대서이가 표를위조인쇄하고 대한 대양동 동생과 가족은총동원하여 이것을 거리에가지고나가 표와『전차장사』에게 사매(賣)하엿다는것이다 그에대해 노인가 그중에서 또 직접소매도하여온 것인데 그중에수는 상세히알수업스나 상당한액에 이르렀을것이라하며 그기술은 실로교묘하여 회사자신도 어느것이 어느것이진짜이고 어느것이 위조품인지잘 분간하지를 못할정도라한다 그런데 전기감대서은 자기네 이외에도 동종의범죄자가잇는듯이 비치엇스므로 혹시 대규모의 위조단이 조직되여 잇지나안는가하여 대동서에서는 계속활동중이다

新義州署서活動 支那人十名檢擧

【新義州】신의주서고등계에서는 수일전부터 극비밀에 활동을개시하야 부내에거주하는 지나인(支那人)약십명을 검거유치하고 방금취조중인데 사건에대한 내용은 극비에부하므로 알수업다한다

鐵鋼組合創立

【德川】경북영덕군(盈德郡)에서는 전시체제하에 국민총동원(國民總動員)으로 총후적성을다한다함은 루보하엿거니와 장기전(長期戰)에 총후(銃後)대책으로 소비절약(消費節約)의 의미하에서 지난삼십일오후세시부터 군회의실(郡會議室)에서 관민유지(官民有志)다수참석리에 철강배급통제조합(鐵鋼配給統制組合)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하엿다

鑛夫들이共謀하고 萬餘圓鑛石竊取

三名咸興檢局에送致

【咸南支社發】함흥경찰서에 몃칠전 괴검되야 취조를밧고잇든 //탕크스텐//광석절도범 본적을 평남영원군신성면에둔(寧遠郡新城面)경수광산(源水鑛山)광부방영섭(方英燮)(三四)김윤식(金潤植)(三〇)송사석(宋士錫)의세명은 일 함흥검사국에송치되얏다 그들은 서로공모하고 지난삼월중순부터 시가약일만칠천원어치의 광석을 절취하엿다한다

殉宣敎師惜別會 慈山에서開催

【慈山】기보=필립보선교사(殉敎宣敎師)는 금년이안식년(安息年)이되여 귀국(歸國)은 이미보도한바와갓거니와 지난삼십일오전열한시반부터 순천시찰지경(順川視察地境)연합교회교인이백여명이 자산교회당(慈山敎會堂)에회집하야 필부사가삼십년전에 조선에와서 자선사업에도 순천지경의 불구자들의위하야 좌각원(坐脚院)을설립한것과 종교사업에 만흔공적을 남긴공을 감사하는생각하는남어지 교회목사변봉조(邊鳳朝)씨의 석별사로 석별회를열어잇는데 축사와 답사가잇슨후 다음 레몬취청과만찬회가잇슨후 네시에페회하엿다

(사진은 필립보선교사부부)

咸州郡州西面에 炭疽病이發生

【咸南支社發】함주군주서면내에 는사오월전부터 축우의대적 탄저병(炭疽病)이 발생하야 농가의공포를 이르키고잇다 함흥서에서 조사한결과 병폐사한것이 세머리나되며 그외에이병으로도 만흔것이 예상되는데 이병은걸리기만하면 죽는무서운병이며 사람에게도 전염된다고하는데 그면에서는 부락민총동원으로방역에 주력하고잇다

咸興鑛業協會發會

百六十名會合裡에서

【咸南支社發】유월일일오전열시부터 함남도청회의실에서 함흥광업협회(咸興鑛業協會)의 발회식을거행하얏다 이날 참집한업자는 충독부에서 특별출석한 촌상(村上)리사관 이하 함흥, 장진, 풍산, 북청등지로부터 일백구십오명의광업가가모여 대성황리에 이결성식을 거행하고서 오후두시부터는 촌상리사관의 강연이잇슨후 폐회하얏다 위원장은 조선광업개발회사 남채련소장 적천정이(赤川正二)씨가 피선되얏다고한다 그리고 안변지방(安邊)의광업협회도 지난 이십칠일오후한시 안변경찰서연무장에서 거행되야 위원장에는 대현광산(大顯鑛山)김인균(金仁均)씨가 피선되얏다

山紫水明桃源境! 鄕愁에떠는望鄕曲

朱乙溫泉勝地에四十餘戶別莊을根據

寤寐不忘"마노프"朝榮華

함경선을타고 주을역(朱乙驛)에서 내리면온천으로가는 뻐쓰가 기차시간마다 친절하게 대령을하고잇다 이뻐쓰를 잡아 타고 서북쪽으로 이십오리길을 달리면 온포(溫堡)라는 주을온천을 머리동리에 다울것이며 온포에서 다시 서북으로 오리쯤 올 줄기를타고 드리가면 좌우의 산파산에는 녹음이 무르녹아 천지가 훈훈해보이고 그중간을기암괴석을 시처흐르는 냉롱의 음률이며 알맛게재워잇는 자연미예안긴 주을온천(朱乙溫泉)거리가 나올것이다 이 온천거리를 지나 역시 그냉물을끼고 한마장쯤 더올라가면 잡목이 빈틈업시드핀 평풍가튼산이 좌우로 안으하게 둘러차고 냉물어던산비탈을 어란잡아 내려모를 별장이 솝사이에 띄엄띄엄 그림가티 노혀잇고 열풍서국은 손들의 왕래가 빈번한 광경을 볼러이니 처음대하는사람이면 누구나 이곳이 별유천지나아닌가하는 느낌을 갓게한다

별장은 지극히 소박하면서도 모두가 별장으로서의 정서를 충분히 표현시키고잇고 집과집사이에는 과수원(果樹園)도잇고 채전도 운동장도 극장까지 구비하야 잇스니 이부락을 통치면 사십오에 평상시의 인구는 십이삼명에 불과하나 열두사람이 사십여호의 별장을차지하고사는 이부락을 일러『노비나』(NOVINA)촌이라한다 『노비나』의 주인공은 노서아혁명당시 연해주(沿海州)로부터 이곳으로 흘러온 백계노서아인 (白系露西亞人)의 거두『유-리 미하이로프·양꼽스키-』씨로 기자는 어려운망명가가 이국(異國)땅으로 흘러와『노비나』란별천지를 꾸며노코 재정시대의아득한 영화를 꿈꾸며 지나는색다른생활을 여기서 소개하고저한다

×

그들은 무엇으로 어적막한망명생활을 소일하고 잇슬고? 져물이닷치면 눈기픈아침 고요한 천지의 적막을 깨트리며 어깨에엽총(獵銃)을 들처메고 일족남녀과 가티 흥은 빨빨이뒷산의 눈바람을 헤치고 용감한행군을 시작한다 산중왕으로 자처하는『호랑이』 미련한곰 『곰돌』 눈치업시 뻐빼한『메도야지』(山猪) 번개 가티 기여가는『뒹우』 등이 뛰고잇는 결직한 발상이 그들의 눈아페는 범어저 잇슬뿐 출입할도업고 괴로하다는 눈치도업고 무섭다는 겁도업시 이를 사냥 나풀 닷새— 이처럼 날과밤을거파세이며 백두산(白頭山)과 관모연산(冠帽連山)의 이구석저구석을 상삿치뒤지는것이다 그들의생활무대이다 수렵이 끗나면 다시 전원(田園)에 도라간다 과원(果園)과 목축(牧畜)의 제원(菜園)과 과원(果園)이 잇고 목장(牧場)과 양봉(養蜂)이

이 여기저기 노혀잇다 과원에는 배(梨)사과(林檎)를 비롯하야『스마로징』와『구르소프니』 이라는『노서아』파실이 담백심어잇고 채원엔 일상식료품으로 소비할만큼 한것이 북국식잔흔 정서를 나타내고잇다 목장에는 사슴(鹿)떼와 소와도야지가 제마다 한떨치가되야 어린안에서 회담을 지키고잇스니 망향곡(望鄕曲)에 짜드른『노비나』촌에는 이이상의 푸접꺼리가업다

×

어조에 혀터저잇는별장은 원마을에 사십호와 해안선(海岸)에이어『노서아』『구르소프니』 이라는 용연(龍淵)에이 다 총지망이십만평에 가까운지 역안에 유실호의 별장의소용은 무엇? 그는 별장을 빌리는직 업이나 이곳에서는 여인숙(旅人宿)이란 간판아래 여인숙영업을 하고잇다 목축이나 수렵이 나 원예등은 부업(副業)이고 별장영이 본업이다 이곳을차저 오는 여객은 동양각지에 산재한 백계로인이 팔할을 점하고 남어지 어할은 불(佛)독(獨)영(英)국인들로 매년 상해(上海)할빈(哈爾濱) 천진(天津) 봉지에서 모여드러 칙팔월의 여름휴가를 이곳에서보내고 간다 평상시면 십이삼명 에불과하는 //노비나//촌의 인구가 갑자기 어백명에 가까운 조밀한 소도시를 이루게됨으로 이때의 번창은 상당하다 극장한 식당은 초만원이되고

(蘭領)과 교회당(敎會堂)은 모두 성일사이업시//멤버-//를바꿔내이기에 분수하고 해수욕장(海水浴場)에는 색다른 객들의제마음것 뛰노는 바람에 일부러 이호선(泥線)된그림을 구경하려고 이땅의관객들이뒷산에옹게중게 모아안는것은장관이다

×

일년을 통하야 이동안의 두달은//양굽스키-//씨의 필자가 황적퍼이는 찰나도되고 동시에 망향가를 이저버리고 순간의행복에 도취하는 시기도된다 어 처럼 버러드리는//돈//이 잘트 려오면 일년동안생계를 헤어려 주기도 하나 역시부족액이생겨 할수업시 수렵과 목축과 원예 의수입으로 이것을 보충하지안 호면 안된다는데 작년은지나사 변(支那事變)이 돌발하자 모아 드럿던객들이 상해로 천진으로 넘겨논가족 흥은 재산이엇지되 엿나—하는 염려때문에 모두 예정에압서서 다라나는 바람에 //노비나//촌의 경상비(經常費)와 세입부(歲入部)에산액(豫算額)을 여지업시 삭감시키고마럿다한다 이때문에 이조의 재정은최하수 없시 극단의 긴축정책을써야하기 때문에 요지음의곤경은 대단한 모양이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사변의 확대에 반대할바아니지 만 당면한 예산을 위하야는여시 하로속히 평화가 도라오고 //노비나//가 번창해지기를 바 라고잇지나 (사진은 노비나의부락정문(正門)) (계속)

咸北特派員吳快一記

大田 第六回全朝鮮自轉車競技

▲時日 六月四、五兩日 ▲場所 大田木尺運動場

◇主催 朝鮮日報大田支局 ◇後援 大田自轉車選手會

朝報案內

失印 木刻楕圓形『張東■』 昭和十二年十月於京城 月以後右印使用無效 紛失 昭和十二年十一月

工場讓渡 センバン機二タ一ロ上ボ一ル盤モ一タ一其他工場設備一式完備 建物敷地付 ... 電話光化門一七五三

殘本 本朝鮮學校 ... 朝鮮敎育社

自轉車 實用同一價三十四圓以上 新品在庫 ... 京城南大門前角

ツヅキ陳列所 電本二三二一

アイスケーキ機 オカモト大キンシ 冷凍機販賣 (カタログ進呈) 小松電氣商會出張所 平壤 ... 電話二一八一番

털나는藥 후미나인

禿頭病 ●若禿●薄毛●脫毛●白髮 ... 毛●가리매머서 진대●三번취고●흰털 한대●男女털내나고 他털이러어보기흉한이는 곳쓰라 ... 價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十錢 (全國到處의藥店에잇슴) 說明書申込次第進呈 東京市芝田村町電車通り 發賣元 東京藥院

博士創製한 털나는약 후미나인은皮膚科專門田中醫學博士가創製한것인데털나는데必要한適當한 刺戟作用과 興奮作用과 營養作用이 毛細管의發生을促進하고 털의脫落과비듬을防止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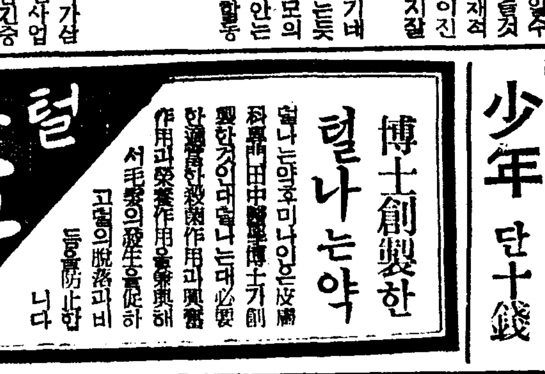
少年 단十錢

急告! 瑞西製品의僞品이多하야外國時計가四月부터輸入不能인으로突然大暴騰을 演하고잇읍니다 그러나弊社의在庫品은從前價格대로分讓하겟사오니 此機를失치마시고註文하심을伏望 (商報進呈)

▲월삼、엘진各種 ▲瑞西獨逸製各種 ▲純金과가튼十八金 代用側各種 ▲國產時計各種 ▲女子用懷中時計 ▲鍍金비녀반지各種

八圓 六圓 八圓

新義州驛前 合名會社 三一洋行時計部 振替京城貳四壹貳參



カゴメ 케챱 자고메 プッチャケ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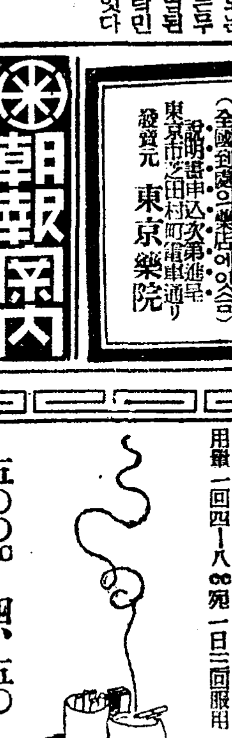
(滋養豐富한토마트의調味料)

따뜻한家庭用 치킨라이스

材料 鷄肉五十匁、玉葱二個、밥一다섯人分、カゴメケチャップ二合、白飯五六人分

만드는法 닭고기에빠다를두어서鷄肉과玉葱을너코カゴメチャップ를너어서 볶은다음白飯을너코徐徐히석거서 그릇에떠잡읍니다

カゴメソース本舖 愛知トマト製造株式會社 名古屋市外上野村



時代에適應한 最新强壯劑 特히一般虛弱 神身過勞

榮養障碍、神經衰弱、腺病質 肺結核、肋膜炎、性的減退、缺落症、病後恢復期、食慾不振에特效

食慾을增進하며神經及身體細胞의活力을昂進함

美味芳佳 服用容易

用量 一回四—八錠 一日二回服用

フェロトン 페로톤

五〇〇 四、五〇 平壤西門通

製造發賣 合資會社 高麗製藥所 全國有名藥店에서販賣함

子雲居士金公晋桓氏以宿患五月三十日(陰五月初三日)午後十二時嘉會町一番地十五自宅別世謹玆訃告

永訣式 六月七日午前十一時自宅

發靷 同月同日午後一時

安葬 同月同日午後四時高陽郡恩平面左月里(延曙)

先塋 ...

昭和十三年六月二日

嗣子 洛■ 孫 ... 護喪 ...

春繭値基決定 二百五十二圓

前年春繭値基보다十圓高로

協調的態度圓滿協定

本春繭値基協定은 朝刊旣報와가티 決定되엇는데 朝鮮產生絲는輸出貿易品인 關係上 就中最近不振인 米國財界의 動向과 國內高物價時代 事變下銃後의 取引圓滑을 期하는等 見地에서協調的態度를가지고 愼重한協議를 한結果 圓滿히 協定이 成立된 것이라는데 即七百圓基準二十八掛半으로 決定한것은 製絲業者의 互讓精神을 發揮한것으로써 極히妥當하다고한다 即七百圓以上七百十六圓未滿 二十八掛半이어면生產費가 二百五十二圓이되어 前年度의 値基二百四十二圓에比較하면 十圓引上이된다 物價勞銀工賃經費의 二割內外膨脹에 對比하면 極히적게 生產費를 견제으로서 一般農產物價高에 不拘하고 繭값만이 低位인것에 對하야製絲家가 讓步한것이라한다

【値基】라함은 生絲價에서 繭價를算出하는基本價가되는 生產費（製絲其他費用을合算）를 稱함이니 即繭을가지고 製絲하야 生絲를만드는데잇서 生絲市價에서 生產費를 빼고繭價를決定한다

【掛目】이라함은 繭에包含된絲量（生絲로產出되는 純分量）에依하야 繭市勢를算出하는 基準이되는것이니 即掛目을算出하는方法은 ▲滿算市場生絲當限과 先限의平均價에서 値基를 減하고 그것을 十六으로 除하면 나온다 滿算市勢는 百斤市勢인데 百斤은十六貫이므로 十六으로 除한다 이번에 絲價七百圓以上七百十六圓未滿에는 二十八掛半으로決定되엇는데 어떠케 二十八掛半이나오느냐하면 絲價七百圓과 七百十六圓의 中間價는 七百八圓이되는데 七百八圓에서 生產費二百五十二圓을빼고 十六으로除하야 二十八掛半이라는 數字가 나오게된다

【絲量】 繭百匁中에包含된絲量은 優等繭約十三匁 特等十二匁、一等十一匁、二等十匁、三等九匁、四等八匁、等外七匁（標準은 十匁）

【繭價算出】 六月一日의 橫濱生絲 後場大引은 當限六百七十九圓 先限六百九十八圓 平均價가六百八十八圓五十錢으로되어 이번決定에依하면二十七掛半 에該當하는바 繭一貫中百匁의 絲量이것을 標準으로하므로 標準繭一貫市勢는 二十七、半에다가 一、三을 乘한것을 十으로除한것 即三圓五十七錢五厘가된다

十二年春繭

絲價 圓以上	圓未滿	掛目
六九八	七一四	三〇・〇
七一四	七三〇	三一・〇
七三〇	七四六	三二・〇
七四六	七六二	三二・五
七六二	七七八	三三・五
七七八	七九四	三四・五
七九四	八一〇	三五・〇
八一〇	八二六	三六・〇
八二六	八四二	三七・〇
八四二	八五六	三七・五
八五八	八七四	三八・五
八七四	八九〇	三九・五
八九〇	九〇六	四〇・〇
九〇六	九二二	四一・〇
九二二	九三八	四二・〇

十三年春繭

絲價 圓以上	圓未滿	掛目
六二〇	六三六	二三・五
六三六〃	六五二〃	二四・五
六五二〃	六六八〃	二五・五
六六八〃	六八四〃	二六・五
六八四〃	七〇〇〃	二七・五
七〇〇〃	七一六〃	二八・五
七一六〃	七三二〃	二九・五
七三二〃	七四八〃	三〇・五
七四八〃	七六四〃	三一・五
七六四〃	七八〇〃	三二・五
七八〇〃	七九六〃	三三・五
七九六〃	八一二〃	三四・五

內地生產費 百斤百八十圓

內地의 掛目協定에 對하야 養蠶家와 製絲家가모두 不滿足이라한다 即百十四中D格百斤의 生產費는 諸物價의騰貴와 工賃의 上에依하야 百八十圓을 要한다고한다 勿論이것은 一年을通한 平均으로서 以上의協定에 基하야 採算하면 白繭絲의 三十四掛는 買放이오 繰入을二掛라하면 三十六掛로되어 糸元은五百七十六圓 이에다가 生產費百八十圓을 加算하면 七百五十六圓이 原價採算이된다 이에서副蠶絲代를 四十圓으로 보아이것을 除하면 七百十六圓이되는데 B格은 普通D格보다 十圓乃至二十圓格上으로 取引됨으로가령十五圓이라하면 採算點은大體七百五圓이라한다

製絲經營은投機

養蠶家의危險을轉嫁

製絲家로서는 겨우一個月間에 一個年의 六割分의原料를 仕入하고 前途絲價의騰貴를 바라고잇스므로 原料를 仕入하고나면 其後의製絲經營은 全혀 投機圈內에 入케됨으로 觀測에 依하야서는 養蠶家의危險을 製絲家에게轉嫁한다고도할수잇다 特히今年과가튼 先約定不振인해에는 一層그感이 깁프리라한다

製絲家養蠶家 雙方裏面事情

內地의關係에잇서 이제雙方의裏面事情을보면 製絲家側에서는 以上의 協定에 利가업는데 그것은 養蠶家가從來自給勞力의 組織化를第二義的으로하든것을 最近은 이것도重大視하야 生產費에 計上한것이라 製絲家側도 또一個年中의金利를 치넛는等 表面은 그럴듯하나 裏面事情이 잇스므로 養蠶家도 製絲家도 生產費가 못되게되고 表面을 올리면서도 兩者는 對立하는것이다

大陸의紐帶로서 北朝鮮三港登場

滿鐵多年의大連集中主義修正

朝鮮海運界의新動向

滿鐵多年의 大連集中主義는事變以來의 特殊事情으로 修正되고 이에伴하야 朝鮮『코-스』와 北朝鮮三港이 日滿의紐帶로서 俄然利用價値를 發揮케된것은 最近의 朝鮮內海運輸界의 顯著한 新動向으로서 注目된다 이것은 大連港이 北支에 集中되는貨物의 滯荷七十餘萬噸때문에 顯著히 荷役能力을 制限케된 結果로서 滿洲特產의 北朝鮮出荷와 安奉線을通한 西朝鮮諸港積을 招致하고 또 輸移入貨物에 잇서서도 大連荷役의 變遷은 釜山埠頭과 北朝鮮各港揚을 激增케하엿다 朝鮮內各港은 鮮外荷役에 順調이요 또 貨車도 極히 圓滑한狀態임으로 所謂 大陸의紐帶인 使命을 如實히 遂行하는中인 狀態이다 從하야 이動向은 朝鮮近海의 運航에 이어서 繁忙을 連續케하는 狀況으로서 季節的 朝鮮米移出의 一段落의 夏枯도 本年은 以上의事情으로 一掃될狀勢라한다

店頭裝飾競技會

京城商工聯合會에서는 六月二十日부터 七月十五日까지의 中元全市大賣出附帶事業으로서 國產愛用商業報告裝飾陳列競技會를 七月一日부터 十五日까지 開催키로되엇다

京畿道商工指導相談所 中旬頃에開設

京畿道商工指導相談所는 今年度부터 實施하려고 準備中 家屋及 囑託員을 選衡中이든바 마침내 該相談所는 南大門通二丁目一五〇番地에 設置하기로 決定하고 工業部囑託 海軍大佐 辻田正一氏를 任命하야 着任하엿스므로 商業部囑託員의 決定着任을 기다려 大體六月中旬頃事務를 開始할 豫定인바 近近技術員도 各各 任命될터이다

北滿行貨物 淸津에集中

羅津港利用을希望

北鮮三港經由 北滿에의內地貨物은 繼續하야 旺盛한데 三港中에 淸津揚이最多로 淸津港의 貨物集散狀況은 通關手續其他關係로 貨物이 毀日同港에止할것으로 同港의倉庫其他設備不足、貨車不圓滑에依하야 現在淸津滯貨는 三萬噸에達하고잇다 이에反하야 羅津港의利用은 意外로적고 同港으로부터의貨車는 空車로北行하는境遇도 不少한狀態인바 北滿行貨物은 자못跛行的輸送狀態를示하야 關係方面에서 羅津港利用을 特히希望코잇다

鎭南浦港 築港促進

狹隘로滯貨多

鎭南浦港은 最近 米穀의移出其他 內地雜貨의移入等 貨物의吞吐가 旺盛한데 同港의岸壁은 三、四千噸級의船舶을 二、三、四隻繫留하면 더할수업시 狹隘하야 十數隻의 船舶이 沖待하고잇는 珍狀態로서 同港의 築港計畫促進이 去益必要視된다한다

產業貿易功勞者 群山大澤氏表彰

日本產業協會에서는 今回 第十四次 產業貿易功勞者의 表彰을 行하얏는데 朝鮮으로부터는 群山府本町 大澤藤十郎氏가 表彰되엿다 同氏는 鄕里 島根縣 濱田港에서 貿易株式會社를設立、南朝

金山送電線 三年計畫着工

產金增產計畫에伴하는 金山送電線은 三個年計畫으로써 六萬六千볼트 三千三百八十키로、二萬二千볼트 三千三百七十키로、合計六千七百五十키로를 測量이 完了되는데로 着工하기로되엇는데 이에 伴하야 需要地附近의 變電所設置實地踏査를 爲하야 遞信局電氣課 安部技師外 總督府產金課로부터 係官數名이 近近出張할터이다

米移出續增加 八百萬石突破

粟輸入四十五萬餘石

總督府財務局調査에依한 五月中의米移出高는 百八萬八千六百七十九石인데 이를前年同月에比較하면 四十萬四千三十九石의大增加를보이고 또昨年十一月以降累計米移出高는 八百九萬三千七十石으로 前年同期의 五百三十九萬八千六百九十三石에 比하면 二百六十九萬四千三百七十七石의 增加를示하고잇다 그리고 粟의輸入高는 今年五月의 十二萬三千七百四十一石을前年同月의 十五萬二千七百四十八石에比하면 三萬二千七石의減少를보이엿스며 昨年十一月以降累計粟輸入高는 四十五萬五千三百七十石으로 比前年同期十三萬九千七百七十六石의減少를 示하고잇다

滿洲國에서 貿易統制强化

輸出制限品目擴大

朝鮮工業協會着情報에 依하면 滿洲國政府에서는 國內物資保有高를 確保하는 同時에 이需要의 圓滑한 運營을 促進하고 아울러 日本의 貿易統制의 實情에 順應하는 見地에서 今回外國貿易과 國內配給機構의 根本的統制를 斷行할 方針을 決定하고 目下 이具體策에 關하야 銳意研究를 進行中인데 爲先第一着手로 輸出貿易의 全國的統制强化를 行하기로하고 從來貿易統制法에 基한 輸出制限品目이 玉蜀黍와 蓖麻子油의 二品目이던것을 다시 三十品目의 追加를 行할 模樣으로 그主要한 品目은 如左하다

高粱 小麥 小麥粉 木材 麻袋 麻類 豚毛 羊毛 皮革 毛皮 作蠶絲 府綢 纖維 모러 포렌鑛 안티모니鑛 鉛鑛 錫鑛 아루미鑛 銅鑛과此等非鐵金屬製品 自動車及 內燃機關 外國產物等

魚油共同購入案 總督府에白紙一任

感情的對立은彼此의損

魚油共同購入問題는 上旬中에 內地硬化油代表가 入京하야 關係方面과 折衝하기로되엇는데 同問題에關해서는 產地業者 硬化油會社의 雙方이모두 大乘的態度를示하야 感情的對立으로 일을 그릇치지안토록 第三者는希望하고잇다 即 產地側으로서도 부질업시 高價要로써臨하는 態度를 가지는 것은決코 妥當치안코 硬化油側으로서도 朝鮮側의 產地排擊態度에서 姑息的인 共同購入案을提出함보다는 차라리 自己의 採算關係를 赤裸裸하게 總督府에 提出하야 그善處를 기다리는 態度가 賢明하다 要컨대 이問題는 共同購入案을 決定짓기까지에 總督府에의 白紙委任이 希望되는바 이며 어떤이도러여 妥當한 解決方道를發見할수잇슬것이아닌가 觀測된다

朝鮮產鱈油 倫敦에輸出

協同油脂에서는 三井物產의손을經由하야 鱈油의歐米輸出을行하얏는데 最近에도 本月積으로 約四百五十噸을 倫敦에向하야 積出키로되엇다

小麥粉標準價格設定

全滿洲에實施

【新京電話商通】 滿洲國財政部는 小麥粉의不足과 價格暴騰을 防止키爲하야 日本으로부터 百五十萬袋의輸入을 行하는同時에全滿主要都市의 小麥粉標準價格을 如左히 決定하고 五日부터實施키로되엇다

	六月中	七月中
哈爾濱	五、四〇	五、三〇
新京	五、五七	五、四七
奉天	五、四三	五、三三
吉林	五、六四	五、五四
安東	五、三三	五、二三
營口	五、三四	五、二四
錦州	五、五一	五、四一

朝鮮產品新舞臺 北支로輸出激增

北支市場의 展開는 朝鮮產品進出의 新舞臺를 提供하얏는데 本年初以來 五月末까지의 主要品의 輸出狀況을보면 激增된것은 淸酒、小麥粉、肌衣、세멘트 等으로 即如左하다 （單位千圓）

	五月末輸出計	前年同期
米及正租	九一八	五二三
小麥粉	七三七	五一四
淸酒	五三四	四九〇
爆藥	五四三	三三三
綿織物	三、七五二	四、六八二
肌衣	六七二	三四八
洋灰	六五〇	四五

經濟界消息

○小林鑛業總會＝小林鑛業에서는 五月末 決算을 마치고 六月三十日 定時總會를 開催하리라는데 配當은 年一割据置豫定

○朝信六分据置＝朝鮮信託에서는 昨三十一日로써 上期決算을마치고 中旬에 決算重役會 二十九日頃 定期總會를 開催하리라는데 配當은 六分配据置豫定

純綿布三A反落

其他는仲値發表中止

天井不知의 勢로 狂騰을 演하든純綿布市勢는 三A四百二圓을 最高로하고 今二日에는 三百八十九圓으로 十三圓의 反落을示하얏스며 其他는모두 仲値發表를 中止이다

株式急騰

鐘紡增資說

今日의市勢（二日）

前場不冴

昨日의 反弛後 今朝의 經濟株式、米棉反撥도 氣迷人氣에는 거의無影響으로 今朝寄付는 東新不變、鐘紡二低로 不冴狀이엇고 그後 買物薄과함께 閑散裡에 이러타할動向도 업시 保勢이엇고 雙方共히 積極性이엇서 漸弛商狀을보이다가 結局鐘紡二百四十八圓丁 東新百四十七圓九로 少堅大引되다

後場爆發

後場은 少弛裡寄付하고 保勢로 東京大引後、鐘紡增資說로 鐘紡은 一擧에二百五十二圓을票로 暴騰함에따라 東新도 百四十九圓을票로 回復하야 商勢一轉되엇다

低價鍛鍊繼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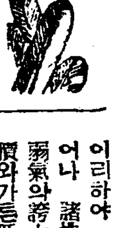
政局不安解消를 機會로 徐州陷落을 實하엿든 一部賣方의 動搖를 招來하야 踏上한市勢도事變前途의不透明、國際關係에對한 依然한 憂念 統制强化의 不可避等을 根據로 仕手態度는 愼重을極하야 高價는 警戒不怠이어서市勢는 反弛狀을 보이게되엇는데 이것을 一面으로보면 去般의 一高로 東新中心이엇고 採算을 本位로하는 雜株는 增資說에依한 影響의 意外深刻과 多少株過剩의嫌도 업지아니하야 主力株高에 追隨하지 아니하엿스니 아모리 主力株中心이러하드리도 雜株의支援이업는 市勢는 結局 그基礎가 薄弱한것으로 土臺없는活躍은 亦是期待難일것이니 確實하야 結局上伸力이 阻止되어 再弛하고마는것이 그間의實情이엇서서 이러한事情은 環境不透明과 時期的으로 不得已하게하는것이므로아직 低價鍛鍊이 더좀繼續될 지안코는 保合圈脫却은 至難할 것으로보인다

金融情勢好轉

賣方側에 云云하는 所謂惡觀的材料는 거의 織込되엇으로 그것을 根據로한 賣進은 勿論 不可能케되는터이나 그러타고 買方에 有利한 情勢가 展開되엇는가하면 그것도 現實로는 아직 여러가지업스므로 結局 積極買도 尙早視하지안는수업다 그러나 다만 金融情勢만은 買方에 有利展開되엇다고할수잇스니 六月에는 株式增資拂込이 激減하게되는 一方 配當收益은 撒布되고 國債償還도 相當한 多額에達하는것을 考慮하면 買方의 實株引受力은 低金利와함께 漸次增進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方面의情勢는 確實히 好轉을志向하야 이것을根幹으로하야 株式의 好轉을 期待할수잇지안흘가하는 一部의 觀測도 업지안타 勿論이에不拘코 市勢는群衆賣買傾向과함께 좀더押目을보이면서 下値鍛鍊이 될것으로 豫想되나 小幅起伏은 如何튼 大幅低落도 또한 難望이란階梯이니 低價는 亦是買拾해 보는것이 妙味잇지안흘가하는 商談이多수이엇다

國債少堅

【東京電話同盟】 依然新規材料가적고 當限納會와함께 一段閑散한推移를 보이고잇스나 無活氣保合裡에도仕手關係로 場味는 少堅하야 甲號二回五分、二回四分 五錢高로 底意는 强調이엇다 ▲甲號四分一〇三三五 ▲一回四分一〇二四〇 ▲二回四分一〇二四〇 ▲二十八年物九九八二〇 ▲佛貨四分一九七九〇 ▲米五分半三八〇



㊑……將의 南支에對한 防備强化와 佛國의 對支援助說로 下押하엿든것이 ▲人氣堅强에 東新五十圓 關門에 다시 上乘하엿스나 英支借款說等을 傳하야 今朝市勢는 다시不冴 ▲結局仕手는 氣迷狀態에엇고 小口側의 賣物로 一高一低의 起伏을 그릴뿐 ▲市勢의活躍를 爲해서는 雜株에 買氣가 動하지안흐면 안될것이나 環境으로보아서는 時期尙早 ▲物價는抑制되고이것이 輸出貿易에 好影響을 與하야 採算株에對한 投資가 旺盛하게되어야할것이어 根本條件 ▲池田財政의 今後의 具體策에 期待는가지나 아직은 不透明 ▲이리하야 積極買氣는 尙未動이나 諸株의 價位로보아서는 弱氣와誇大妄想症으로因한夢想價와가든低價는 爲先不可想像 ▲그저暫時는 低價保合의逆張時代로보고 新情勢展開를기다릴것

㊖……昨日은 反落、今日은 反動高、그러나 어느편으로기우러지리라고 確保키困難 ▲말하자면 保合、그리치안으면 又復一落을 告할것으로 보는것이 차라리 妥當할지몰러 ▲朝鮮의移秧은 바야흐로 始作되는 모양인데 最近來의好雨로 用水不足의憂慮는 거의 一掃된 모양 ▲그리고 前途의需給關係를 打算한다할지라도 樂觀할餘地도업거니와 悲觀할餘地도업지 ▲다만 端境期의米價를 생각할 餘地가毫無 ▲다만 今後大勢는 天候의 如何로써左右?

期米 突込警戒 反撥

前場少戾

今朝阪地先限은三十四圓七十九錢인 昨正同樣의報를 標準하고 當限은一圓八十錢인 一丁低 中은 三十二圓○八錢인 一丁高로先限은 三十二圓九十五錢인 二丁高로寄付한後 阪地七十九錢의 三番同價로 六圓八十七錢까지 突返하엿다가 結局阪地八十九錢을 入하고 十五錢에引止하다

後場續戾

後場은 三十二圓十七錢인 二丁高로 寄付한後 二節十九錢으로 四五節二十一錢에 續戾하야 反撥商狀이엇다

發會後의一落

昨日阪地는 三十四圓九十六錢에 新甫가 發會된後 七十六丁까지 反落하고 當地는 三十二圓二十八錢에 發會되어 一圓九十八錢인 三十丁의 突落을 告하엿다 그런後에는 反動的 買氣가 滋生하야 今朝二圓○臺까지 反騰하엿스나 目下四圍의 事情으로보아서는 又復一落을 告하기外에는 昇騰을하지못할것같다 朝鮮의 現下米界事情으로 보아서는 產地의出廻狀況이 比前良好한 모양으로 正米實勢의 頭重한맛이업지아니하고 凶作의 悲觀은 去番以來의 好雨로 어마큼 蘇生되어 平年作은無難할것이라는 說이엇지아니하며

阪地三期同鞘

當地亦無鞘化

今朝阪地當中先三期는 三十四圓七十錢臺의無異同鞘를 示하고잇스며 當地도 多少의開鞘를示하나또한 無鞘化하는 觀이업지 아니하다 中限은當限보다 二十丁內外의 鞘로되어잇는 當限의 開鞘는 一、二丁乃至二、三丁으로 或人氣에依하야는 當然하다고하기도하나 昨今阪地의 開鞘의狀態는 金利倉庫料의 關係로보아서 當然하다고하겟지만 그原因은 當地에比하야는 十丁以上의 縮鞘임에 比하면 前記의 條件을 除하고 商談이區區함이아닌가하는 觀이다

正米 各地步調 不一

京城不動

天候恢復으로 東地側에 多少安定感을 與하야 依然 出廻는 적고 市中人氣도 推移하여 일고 傍觀態度이어서 當地側의 賣買를 除하고는 全혀賣買가업는 閑散으로 小康과함께市勢는不動이엇다 ◎三等三一、四〇 一等白米三三、〇五 四等三一、二〇

仁川閑散

內地人注는 依然不振으로 賣買精米側共히 低價에는 賣物을 내지안코 買薄으로 對抗하게 保合이엇다 ◎銀坊主三等 三一、四〇 四等三一、六〇 多摩錦三等 三一、八〇 四等三一、一五 ◎ 一二、九五

釜山下放

新穀來米의 內地市場에의 投荷는 必然的으로 鮮米의 重壓을 免키難하려는 見解로 賣行不振의 嫌氣는 益益 深刻味를 增하야 狀勢가되어 唱價도 一擧十五錢低를 報하는 軟弱局面이되엇는데 酒造低도加하야 人氣는 아직도 下向하려는 風情이다 ◎銀坊主三等 三一、一〇 四等三一、九〇 一等白米 三三、一八

大邱伸悩

新規賣物이 減少하야 手當難으로 低價를 實行하는 精米側의 頑强으로氣配는 强하엿스나 目前의 內注杜絕賣行不良으로 唱하기어려 伸悩케되엇다 ◎穀良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三三、〇〇

群山上進

政策市勢로부터 漸次 天災市勢化하야 順雨에狂喜한 人氣도 雨量이過多에 失하야 處處에反對現象이 出現하게되어 도로혀 前途의旱害氣分도加하야 市中은 底堅推移이오 各地期米의 反騰으로 農繁期의 出廻僅少에依한 賣物薄으로 結

木浦軟調

東京商事期米反落 東新되어 依然하야 正租高에 東新되어 山間部도 用途를 擴張하야 早晚所에서 완전히 移秧을 開始하는 狀態로 完了後의 實地動向이 크게 問題되고 加하야 藁葉米의 品質良好는 壓迫되는 形勢로 市中은 賣渡氣分을 全히 行하는 賣도無 見되어 定期의 暴落도 影響으로 市價十錢低의 軟調이엇다 ◎銀坊主三等 三二、〇〇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 三三、九五 ◎銀坊主三等三二、七〇 四等三一、五〇 一等白米三三、八〇

今日財界（二日）

◆米（單位十錢） 仁取期米前場 三二、一〇 三二、一八 今日終値 比前日終値 大阪期米先限 三四、八九 三四、九五 京城白米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不變 ; ◆株（單位十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不變 ◆商品（先限單位錢） 綿絲 [illegible] 人絹 [illegible] 砂糖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海外經濟（一日）

銀行券（一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阪神鰯粕◆ ◆阪神鰯油◆ ◆日本麥粉市勢◆ 鰯油粕・麥粉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京城市中金銀價◆ 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金買入價◆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仁川正米◆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朝取主要取組高◆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群山期米◆ ◆木浦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綿糸◆ 綿糸 ◆日本各地期米◆ ◆大阪棉花◆ 棉花 ◆各地人絹◆ 人絹 ◆橫濱生糸◆ 生糸 ◆大阪砂糖◆ ◆東京砂糖◆ 砂糖 [illegible]

京城物價（二日）

▲白米（叭、單位錢） 多摩錦 特 [illegible] 普通一等 [illegible] ▲麥粉（新二二斤、單位錢） [illegible] ▲肥料（一〇貫、單位錢） [illegible] ▲紙物（單位厘） [illegible] ▲石炭（瓲單位錢） [illegible] ▲石油（二罐、新綠、單位錢） [illegible] ▲洋灰（五〇瓩袋、單位錢） [illegible] ▲砂糖（百斤單位錢） [illegible] ▲鐵物（單位錢） [illegible] ▲海產物（單位錢） [illegible] ▲染料（斤、單位錢） [illegible] ▲塗料（單位錢） [illegible] ▲木材（才、單位錢） [illegible] ▲本絹、人絹（疋、單位錢） [illegible] ▲牛皮（乾皮百斤單位錢） [illegible]

明 盃 米 康益夏 仁川

株式 期米 玉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マルタマ取引店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七月開業 遊淸ノ御一日 ハ二健保ノ後銃 浦登永 法德溫泉ホテルへ 電話永39番222番 家族湯ノ設備アリ 案內所 光③2858番 法德溫泉株式會社經營